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3853.26	코스닥	863.95
	(-151.59)		(-27.99)
금리 (미국 9월)	2.872	환율 (원·달러)	1471.50
	(-0.036)		(+3.60)

‘국방비 2400억弗’ 중동의 선택은 K-방산

공동개발·현지생산 ‘완성판’ 협력

R&D 비용 부담 증가에도 세계 최대급 국방비 기반 장기프로젝트 수요 기대감 수출 기회요인 동시 존재

한국과 중동의 방산 협력이 단순 수출을 넘어 개발·생산·공동 진출을 묶은 ‘완성형 패키지’로 전환하면서 K-방산이 구조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중동의 개발 단계 참여가 확대되면 기업들의 R&D(연구개발) 부담은 커지지만, 세계 최대급 국방수요를 기반으로 수출 규모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계기로 중동지역과의 방산 협력 구조가 뚜렷하게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간 한국의 방산수출은 국내 생산 후 해외 판매라는 완제품 중심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공동개발·현지생산·3국 공동 진출 등 하나의 체계로 묶은 ‘완성형 패키지 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면서 방산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중동 국가들이 실제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게 될 경우 R&D 비용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분기 기준 방산

4사의 누적 R&D 비용은 총 952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약 5670억원을 투입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KAI는 약 1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 증가했다. 현대로템은 27% 늘어난 1684억원, LIG넥스원은 약 868억원을 기록해 89.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동 국가들의 협력 요구가 공동개발 중심으로 이동할 경우 플랫폼 개조·설계 단계부터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R&D 확장은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R&D 부담 증가는 기업에 비용 요인이지만 중동 시장 특성상 기회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중동 지역은 지난해 국방비로 2435억 달러를 지출한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국방비 지출 시장 가운데 하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803억 달러(약 118조)를 지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이스라엘(465억 달러), 튀르키예(250억 달러), UAE(240억 달러), 카타르(144억 달러) 순이다.

노후 무기체계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공동개발·현지생산 방식의 사업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협력이 깊어질수록 단순 물량 공급을



계속 오르는 서울 아파트 값

2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대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로 전주(0.17%) 대비 상승했다.

/뉴시스

넘어 장기 프로젝트 중심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이미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KAI·LIG넥스원 등 4사의 올해 1~3분기 전체 수출액은 27조 217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10조 5342억원)의 약 2.6배 수준이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K-바이오 ‘빅2’, 글로벌 무대에서 CDMO 격돌

삼성 ‘순수 위탁’ vs 셀트리온 ‘현지생산·판매’

삼성, 초격차 생산 기반 확대 셀트리온, 美공장인수로 직면

K-바이오 ‘투톱’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경쟁 구도를 새롭게 쓰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위탁 개발생산(CDMO)’ 체제를 확립하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파트너로 위상을 높이고,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직접 생산·직접 판매 전략을 강화한다.

2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일 재상장을 계기로 ‘순수 CDMO’ 체제에 시동을 건다. 지난 5월 CDMO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완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발표한 후 6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과 상품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CDMO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

주 경쟁력은 지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11월 기준 누적 주주 금액은 5조 5193억원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연간 주주 금액 5조 4035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초격차 생산 능력,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거점 확대 등 3대 성장축 전략에 속도를 낸다. 특히 ‘제2 바이오캠퍼스’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지난 4월부터 18만 리터의 5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이후 같은 규모의 6공장 증설 계획도 밝혔

다. 8공장까지 순차적으로 추가해 오는 2032년 제2 바이오캠퍼스 건설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132만 4000리터의 생산 능력으로 초격차 생산 규모를 유지하게 될 예정이다.

생산 시설 확대와 함께 항체·약물접합체(ADC), 아테노연관 바이러스(AAV), 사전충전형 주사기(PFS)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L2면에 계속〉

/이정하 기자 mlee236@

社告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休&休’ 2025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니티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인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5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심사방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수 상 명 :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수상작 선정 : 11월 27일

metro[®]



지난해 ‘조경혁신대상’을 수상한 GS건설 ‘복수원 자이렉스비바’.

M-커버스토리

사라지는 인간 창작의 경계 ‘진정성’ 논쟁, 다시 불 붙다

AI, 어디까지 예술인가

AI 침투에 흔들리는 예술성 창작 기준 재정립 요구 확산

“남은 AI보다 쳐 못 그리는 데 왜 그림?”

지난 21일 한 사용자가 X(옛 트위터)에 올린 짧은 두 문장이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익명의 공격자에게 “선생님도 챗GPT보다 멍청한데 살아계시겠습니까?”라고 맞받아친 DM(다이렉트 메시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

해당 게시글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영혼 없는 비위 맞춤을 풍자하는 밈(유행 콘텐츠) “너의 그 대답 핵심을 찔렀어”라는 밈글로 화룡점정을 찍으며 23일 오후 12시30분 기준 2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바야흐로 대(大) AI 시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예술과 창작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관련기사 3면〉

AI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기 전, 많은 전문가들이 문화 예술 영역을 인간이 기계에 뺏기지 않을 최후의 보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AI의 상용화가 본격화되자 예술 분야가 가장 먼저 AI에 의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침식됐다.

올 11월 AI 가수의 노래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인간이 AI를 활용해 만든 작품뿐만 아니라, 창작의 주체가 AI인 영역에서조차 AI가 인간을 압도하는 사례가 나온 것. 인간은 AI의 최후 보루 침범을 바짝 경계하며 ‘예술의 진정성 수호’를 앞세운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jk1@

메트로 한줄뉴스



▲이준석 “국힘과 연대 가능성 없어, 스스로 그릇 넓힐 것” /사진 뉴시스

▲李 청와대 복귀에 국방부도 옛집으로… 이사비는 240억원

▲전현희, 내란재판부 도입 거둬 주장… “尹에게 인에 반격 기회 줘선 안돼”

▲與 지도부, YS 추도식 전원 불참… “이러니 개 말·김어준 아바타”

▲‘의식 1%’ 장애인인 과대표? 김예지 “정작 과대표는 법조인”

▲尹선고 임박인데 ‘내란특판’ 밀어붙이는 與 강경파… 당내도 ‘우려’

“금산분리 완화, 최후의 카드… 기업 민원으로 바꿀 수 없어”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현 규제 속 본업 충실해야”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과는 입장차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와 재계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담회에서 “(금산분리)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완화할 수 있지만, 규제 틀을 함부로 흔들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본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가, 불필요하면 굳이 완화할 필요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는)최후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들을 향해 “기업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들이 현재 규제 하에서도 본업에 충실하고 R&D와 시설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산분리 원칙이 벤처투자 활성화의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전략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완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부처 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최근 재계는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에 금산분리 규제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주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내부 입장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제한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투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인력과 조직의 대폭 증원을 예고했다. 상임위원 1명 증원과 국단위 조직 확대 등 총 167명 증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증원이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배달앱, 하도급, 가맹 분야 인력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1분기 개편방안이 실행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민생 분야와 플랫폼, 대기업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제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다만,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거래법은 국

민적 지지와 관심 속에서 시행됐고,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기업 집단 내부 지배구조 불투명, 사적 이해관계 개입 등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경제 발전에 제약을 겪는다”며 공정위의 감시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시스템화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공시제도 완화 주장에 대해선 “경제가 발전하면 공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개 대상을 줄이자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에 대해선 “총수 일가 중심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화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

NH농협금융

다스

한

햇살

깨끗한

물

건강한

땅

농

업

에

필

요

하

는

“

농업인 안전을 위해

농업인내안전보험이

무배당

필요합니다

”

농업인내안전보험 무배당

보험료의 50% 국고지원

영세농업인*은 70%

*농업경영체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정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형 대비 보장이 강화된 산재형 선택가입 가능

성별, 연령별 구별 없이 단일 보험료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질병 및 재해 보장

이 상품은 전국 농축협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자원은 요약된 자료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가산지급을 할 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예대 보험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의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 또는 배상 사항이 있을 때에는 NH농협생명 내망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로 연락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일 제2025-00402호(2025.01.24~2026.01.23)

농림축산식품부

내망같이

NH농협생명

‘위기 속 안정’ 삼성에 이어 현대차 등 사장단인사 예고

LG그룹, 이번주 사장단 인사 예정
권봉석·신학철 2인체제 변화 주목

현대차그룹, 이르면 이번주 재정비
엔지니어 출신 임원기용 힘 받을 듯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원화 약세와 물가 상승에 따른 위기경영 돌파를 위한 경영 안정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대기업 규제, 노조 리스크 등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키워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안정 속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주요 기업들은 사장단 인사를 통한 미래 대비에 속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시작한 계열사 사업보고회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를 시작으로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사업보고를 들은 구광모 LG 회장은 조직 안정화와 미래 혁신 투자에 방점을 둔 인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권봉석 (주)LG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신학철 LG화학 최고경영자(CEO) 등 2인 체제에 변화가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이르면 금주 사장단 인사를 통해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현대차그룹 사장단 인사는 2022년 11월 30일, 2023년 11월 21일, 2024년 11월 15일 등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달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대미 관세 협상 등의 주요 현안으로 예년보다 늦어

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현대차는 그룹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로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을 영입하는 등 해외 인재에 대한 평가도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미 자동차 고율 관세 부담과 조지아 공장 한국인 직원 구금 사태 등도 해결한 만큼 대규모 조직 변화보다는 안정을 유지하면서 기술 혁신을 꾀할 것으로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사장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처음 진행되는 만큼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도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총 4명으로 지난해 9명보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소폭 인사를 단행했다. 주목할 부분은 삼성전자가 반도체(DS) 부문의 전영현 부회장과 모바일·가전(DX) 부문의 노태문 사장을 필두로 ‘투톱 체제’를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전영현 부회장은 삼성전자 DS부문의 핵심인 ‘메모리사업부장’ 직을 유지했고, 노태문 사장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맡아온 DX 부문장 ‘직무대행’을 떼고 정식 부문장으로 올라섰다.

SK그룹과 HD현대도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른 ‘조기 인사’를 단행했다. SK텔레콤 사장 자리에는 법조인 출신의 정재현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가 올랐다. 또 SK온은 소재와 제조업 전문성이 높은 이용욱 SK실트론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SKC는 자회사 SK엔펄스를 이끄는 김종우 대표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지난달 17일 대기업 정기 인사 시작을 알린 HD현대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家) 3세인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양성운 기자 ysw@

‘무엇이 창작인가’ 본질적 질문 직면… 기준·규제 등 논란

창작의 경계 흔드는 AI

기준에 따라 ‘창작품-쓰레기’ 오가
저작권 침해·책임소재 등 논쟁 격화
“지금 필요한 것은 성찰하는 태도”

생성형 AI가 음악·문학·미술 전 분야로 확산하면서 AI 거버넌스(운영 체계) 전문가, 예술계와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들이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법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현재 대부분의 법 체계는 창작을 인간의 행위로 전제하며, 인간 창작자에게만 저작권을 부여한다. 흥경한 미술평론가는 “카메라가 아무리 정교해도 사진의 저작권은 카메라가 아닌 사진가에게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AI가 창작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프롬프트에 명령어를 내렸다고 해서 창작자라고 부를 순 없다고 본다”며 “그는 단지 ‘프로그램머’ 혹은 ‘엔지니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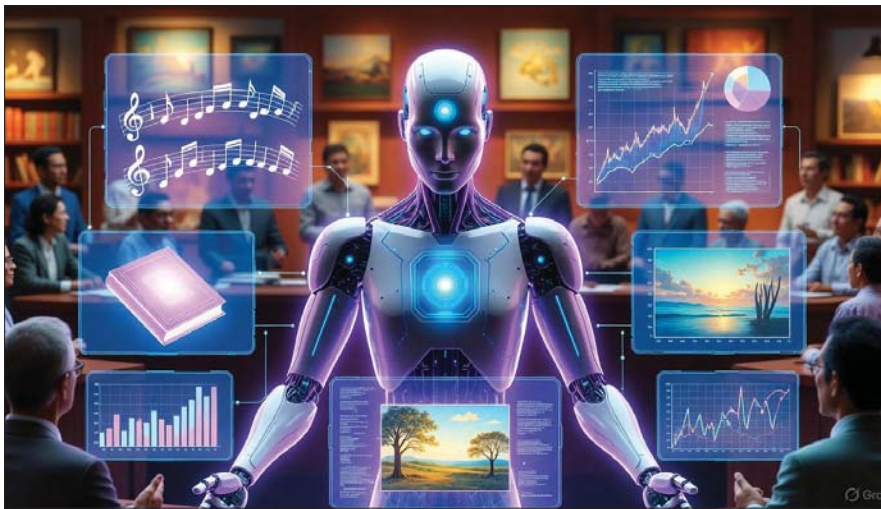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도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인간의 기여나 편집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면 현재 법 체계하에서는 AI가 만든 것이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볼 수 없고, 저작권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창작의 주체 논란을 넘어, ‘AI 슬롭(쓰레기)’과 ‘진정한 AI 창작품’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흥 평론가는 ‘AI 슬롭’을 인간의 깊은 개입 없이 프롬프트 몇 줄로 대량 생산된 콘텐츠로 규정하며, 반복적인 시각적 클리셰나 내러티브의 공허함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한 AI 창작”은 AI를 도구이자 협업자로 활용하되, 인간 창작자의 명확한 비전과 미적 판단, 그리고 반복적인 개입이 있는 경우라고 부연했다.

흥 평론가는 “AI 슬롭이나, AI 창작품 하나의 구분은 가치 판단의 문제”라며 “과거에도 ‘진정한 사진’과 ‘단순한 스냅샷’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경계가 흐려졌다”고 덧붙였다.

전 이사장은 AI가 진정한 창작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가 생성해내는 콘텐츠는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작품들과 예술품들을 학습한 뒤 알고리즘에 의해 무작위로 재구성해 내놓은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과 윤리



그림으로 생성한 ‘인공지능 창작 활용’ 이미지

적 책임 소재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다. 전 이사장은 “AI가 기존의 작품과 저작물들을 학습해 생성된 결과물이 기존 예술품이나 저작물과 유사하게 나올 경우 ‘저작권 침해’나 ‘표절’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이나 화풍, 디자인과 유사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이고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인간의 창작물을 집어삼킨 생성형 AI 발 콘텐츠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흥경한 평론가는 단기적으로 창작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AI 찬양론자들은 AI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다른 창작자들에게 고통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외면한다”며 “자신의 저작권은 강조하면서 AI가 제공하는 타인의 저작권에는 무감각하다”고 꼬집었다.

AI 콘텐츠 확산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의 정책 기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변경 혹은 합성된 미디어로 사실적으로 보이는 콘텐츠를 제작했을 경우, 동영상 설명 정보에 생성형 AI 라벨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스크립트 생성, 콘텐츠 아이디어 구상, 자동 자막과 같은 생산성 향상 목적 또는 합성 미디어가 비현실적이거나 변경 사항이 미미한 경우 크리에이터에게 생성형 AI 이용 사실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건강·뉴스·선거·금융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에서 AI 사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유튜브가 직접 라벨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흥 평론가는 AI 아트가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개념적 명확성과 미술사적 맥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AI를 쓴 이유와 그것이 작품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술사적 맥락 안에서 기존 예술

담론과 연결고리가 드러나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I를 말할 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판적 거리두기”라며 “AI 생성 콘텐츠가 제기하는 문제들, 편향성, 저작권, 노동 등을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활용범위 등 논란 지속… “제도적 접근 필요”

≫ 1면 ‘사라지는 인간 창작’서 계속

이달 뉴질랜드에서는 두 저명한 소설가의 작품 표지가 AI로 제작됐다는 이유로 최고 권위 문학상 후보에서 제외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술의 영역에 AI가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 언론사들은 2026년 신춘문에 공고에 “생성형 AI로 창작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은 취소된다”는 문구를 내걸었다.

전세계 창작자들이 활동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올 7월 유튜브가 AI 생성 영상 제재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AI 콘텐츠가 전면 차단된다’는 오해가 번졌다. 이에 유튜브는 AI 슬롭(Slop·쓰레기)만이 금지 대상이라는 사실

을 명확히 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AI는 인간에게 되묻고 있다. ‘예술’과 ‘창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I를 창작의 주체로 보는지, 창작에서 어느 선까지 AI 활용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왜 어떤 결과물은 ‘AI 쓰레기’가 되고, 다른 것들은 ‘작품’으로 불리는지를 묻는다.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 AI는 창작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기술 확장 속도를 고려해 향후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적 기준을 확립해 나갈 것을 조언한다.

/김현정 기자

파트너 시장 전환… 수출 증대 전환점

≫ 1면 ‘중동의 선택은 K방산’서 계속

특히 3분기 단일 분기 수출액이 16조 원을 넘어서며 상반기 누적 실적을 단숨에 추월했다.

업계에서는 중동과의 협력 범위가 확대될수록 공동개발·현지생산방식의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 상승 폭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은 더 이상 완제품을 들여오는 구매 시장이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손을 잡고 가는 파트너 시장으

로 확실히 성격이 바뀌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는 R&D 부담이 커지는 대신 수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DB증권 서재호 연구원은 “중동의 고온·사막지형 특성에 따라 기동화·내구성 중심 한국형 장비 수요가 커지면서 ‘K-방산 제2의 먹거리’로 평가되고 있다”며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우디는 대체 공급원을 찾는 상황이고 한국의 즉시 납기·가격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국산콩

영양개선

캠페인

국산콩

건강하고

맛있게 먹기

건강한 식생활 관리,

콩을 제대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매일 드세요!

아침

두유 한 컵

점심

두부 3-4조각

저녁

된장찌개 한 그릇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실적·지표 견조, 하락은 심리 탓… “공포가 만든 패닉셀”

AI버블 우려, 아시아 증시 급락

펀더멘털 견조해도 심리 흔들
연준 금리 불확실성 지속 국면
원화 약세 심화에 외국인 이탈
개인 매수 확대에도 수급 불안

‘인공지능(AI)버블’ 공포로 코스피·닛케이225·상해 종합지수 등 아시아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현지 시각) 미국 3대 지수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0.88%~1% 안팎으로 올랐지만 아시아 증시 참여자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AI거품 논란이나 금리 불확실성에 비해 하락 폭이 너무 컸다”며 “과도한 공포가 부른 패닉셀”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AI 거품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방향성 전망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다.

◆‘AI거품’ 공포에 사로잡힌 증시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발 AI 거품 우려였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최고경영자)는 홍콩 금융 서밋에서 “기술주 거품이 상당해 향후 12~24개월 내 주식시장이 10~20%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테드 픽 모건스탠리 CEO도 “10~



코스피가 전 거래일(4004.85)보다 51.59포인트(3.79%) 하락한 3853.26에 장을 마감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15% 조정은 오히려 바람직한 수준”이라며 골드만삭스의 과열 경고에 가세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다룬 영화 ‘빅 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사이언자산운용이 9월 말 AI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 팔란티어의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풋옵션을 대거 사들였다는 소식이 더해지며 불안이 증폭됐다.

AI공포는 미국 증시를 강타했다.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1일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1.95% 하락했다. 11월 들어서는 3.47% 내렸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낙폭이 이번 주 2.74%, 11월 들어 6.12%에 달했다. AI 관련 종목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AI 기반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팔란티어는 11월 들어 낙폭이 22.76%에 달했다. AI 관련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엑스(X)의 ‘AI&테크놀로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달 들어 10.3% 하락했다. 뉴욕발 약재는 코스피, 닛케이225,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 등 아시아 증시를 낭떨어지로 몰아넣었다. 거품 논란은 당분간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투자업체 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클 오루크 수석 시장전략가는 지난 20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제목의 투자자 노트에서 2000년 IT 거품과 현 상황에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AI 버블 우려는 반복적인 우려와 해소 과정을 통해 급락 빈도가 억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2026년까지 AI 설비투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AI 인프라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투자 눈높이 낮춰야

코스피가 급락한 지난 21일 한국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6.16% 내리며 9만4800원까지 밀려났다. 지난달 31일보다 11.81% 하락한 수준이다. 이날

외국인은 팔았지만 개인만 2조688억원 어치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다. 이날 포함 11월들어 총 12조6325억원 순매수다. 과거 아시아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학습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단기 낙관론은 여전하다. 정해창대신증권 연구원 “현재 코스피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5배 수준으로 평균 대비 부담이 낮아진 반면 선행 주당순이익(EPS)은 11월 한 달 동안 8.3% 증가해 실적 펀더멘털은 견조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유동성 속도조절 과정에서 나타난 과열해소 국면”이라고 말했다.

JP모건 등 외국계 투자은행(IB)을 비롯해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내년 증시 전망에서 코스피가 50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JP모건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세 인하, 기업 투명성 강화가 이뤄지면 코스피는 5000을 넘어 최대 6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AI거품 외에도 시장을 흔들 변수들이 많아서다.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투자자들은 ADP 주간 민간 고용 지표와 마주하게 된다. 이 지표는 10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취소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

졌다. 핵심 지표인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9월 소매 판매도 동시에 나온다. 두 지표를 통해 미국 소비자의 소비 여력과 소매 물가 수준, 나아가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영향을 주는 품목의 인플레이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진정될 것”이라며 “유동성 우려에 대한 정점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이 12월 금리 동결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될 것이고,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추락하는 원화 가치도 걱정이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평균 1457.2원(오후 3시 30분 기준)을 기록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올해 1월(1455.5원)을 제외하고는 월 평균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긴 건 2009년 3월(1453.35원) 이후 16년여 만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고환율에 따른 원화 약세,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 등이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 내 외국인인은 14조1768억원어치를 팔았다. 시총 보유비중은 35.52%에서 34.74%로 줄어들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빚투’ 사상최대, 반대매매 급증… 개인 리스크 확대

신용거래용자 잔액 27조 근접
반대매매 비중·금액 모두 급증
금리 변수 겹치며 시장 변동성 ↑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빚을 내 주식을 샀다가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가 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26조8471

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신용거래용자란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 주식 매수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빚투’로 불린다.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급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증시 급락세가 지속되면 ‘빚투’ 계좌에서 강제로 일괄매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

이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빚투는 위험성이 큰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반대매매의 위험성이 커지고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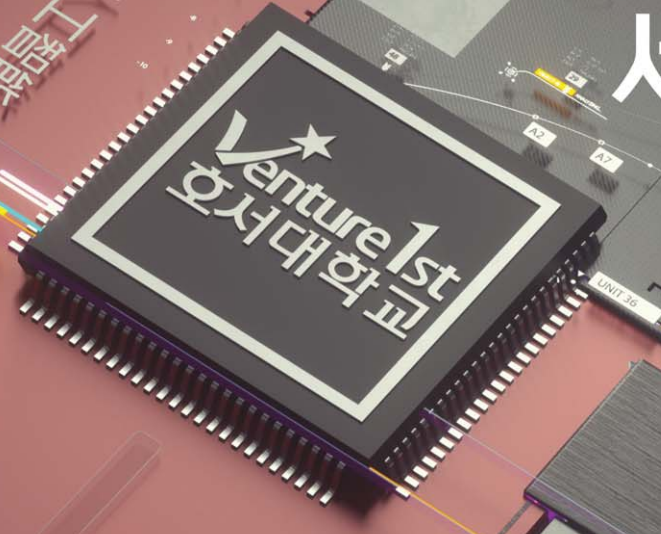
실제로 이달 들어 20일까지 일평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5% 수준으로, 1%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올해 평균치인 0.7%의 2배 수준으

로 뛰었다. 같은 기간 하루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156억원으로, 올해 일평균 약 70억원과 지난달 평균치 68억원을 훌쩍 넘겼다.

반대매매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빌린 신용융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을 다시 되파는 것으로 빌린 돈을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했을 때 강제로 일괄 매도된다.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상승장에 모험을 거는 투자자도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17~21일)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상위권에 ‘KODEX 레버리지’(1천340억원)가 1위에 올랐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한다. 마찬가지로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KODEX 200’(620억원)도 순매수 3위에 올랐다. 코스닥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410억원)도 7위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키웁니다

호서대학교

국내 최초

AI 특화 단과대학 설립 (2019)

바이오의과학 GLP, GCP 선정 (2024)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 선정 (2024)

반도체 패키지 랩 설립 (2025)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
Shinhan

신한「K-성장! K-금융! 프로젝트」

‘K-팝’, ‘K-드라마’, ‘K-컬처’, ‘K-뷰티’, ‘K-푸드’...
세계 속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제 신한금융그룹이 ‘K-금융’의 대표가 되어
혁신을 만드는 산업의 기술력부터
삶을 일구는 소상공인의 손끝까지
금융의 힘을 보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가,
서민들에게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금융

신한「K-성장! K-금융! 프로젝트」
신한금융그룹이 시작합니다.



신한「K-성장! K-금융! 프로젝트」

신한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국민성장펀드 투자, 첨단 전략산업과 신성장 분야 투자/대출 지원, 서민/소상공인 포용 금융을 포함하여 총 110조 원의 금융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과 상생의 가치를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S 신한금융그룹

李, G20·믹타 이어 독·프 회담… “포용성·다자주의 회복”

G20서 격차 완화·포용성 성장 제시
믹타와 다자주의 복원 공감대 형성

마크롱과 한불 140주년 공조 논의
메르츠와 독일 통일 경험 공유 요청
전방위 정상외교로 협력 확대 모색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날(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므키타(MIKTA) 정상·대표들과 격차·불평등 완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아나시우 톨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는 등 정상외교도 펼쳤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열린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담 1·2 세션에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해 개발 협력의 효과 강화를 통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모임인 므키타 정상·대표들과 만나 다자주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므키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동에서 므키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므키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내년에 한국-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아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가 못 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민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에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다”며 “물론 수교 기념도 있지만 저희는 논의할 다양한 의제

들이 있다. 저희는 안보, 쿼텟, AI, 우주,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독일 총리와 의정상회의에서 독일의 통일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독일과 대한민국은, 사실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배울 게 많이 있다”며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서 경험으로 배워서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며 웃음 지었다.

다음날인 23일, 이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는 조선·방산·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고 톨라 브라질 대통령과는 양국 간 외교, 재무, 산업, 기술, 교육, 에너지 등 범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도시철도 적자 절반이 무임손실!

부산교통공사 최근 5년(‘20~’24년)
연평균 무임수송 손실은 당기손실의 약 54%

10.27. ————— 11.26.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국회 국민 동의청원

1분이면 됩니다



국가가 책임질 때
초고령화시대 계속가능
교통복지가 완성됩니다

부산교통공사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예결위 예산안 막판 심사 돌입 ‘배당 분리과세’ 조세소위 논의

여야, 지역상품권·농어촌 이권
소소위 가동하며 막판 조율 돌입
취약계층·성장펀드 등 공방 지속
배당 분리과세는 시기 조정 쟁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8.1% 오른 총 728조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본 예산안인 만큼 큰 수정 없이 예산안을 사수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농어촌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등을 이재명표 예산안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적극 삭감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예결위는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가동하고 그간 여야 입장이 첨예했던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국민성장펀드 등 100여건의 사업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소위는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여당 간사, 박형수 예결위 야당 간사,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등 소수인 원만 참가한다. 소소위는 매년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때마다 가동돼 왔는데, 회의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서 ‘밀실 심사’,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보은’과 ‘편가르기’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망 확충을 ‘보은 예산’이라 부르는 국민의힘의 인식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강화, 지역 생태·환경예산 증액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 과제”라며 “이를 ‘편 가르기’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 지역과 계층을 향한 국민의힘의 오래된 정치습관을 반영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정권 코드에 맞는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청년의 삶을 위한 예산은 줄이고, 자신들의 코드 예산만 대폭 늘리고 있다”며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주거 기반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을 정부안에서만 3조7000억원을 감액해놓고도 보완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반면, 정권 코드에 맞춘 예산은 예외 없이 대폭 증액됐다. 향소포기 증가에 따른 국가배상금 확대,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 지원, 4대강 보 해체 대비 재자연화 예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추가 증액 등은 필요보다 ‘코드’가 앞선 대표적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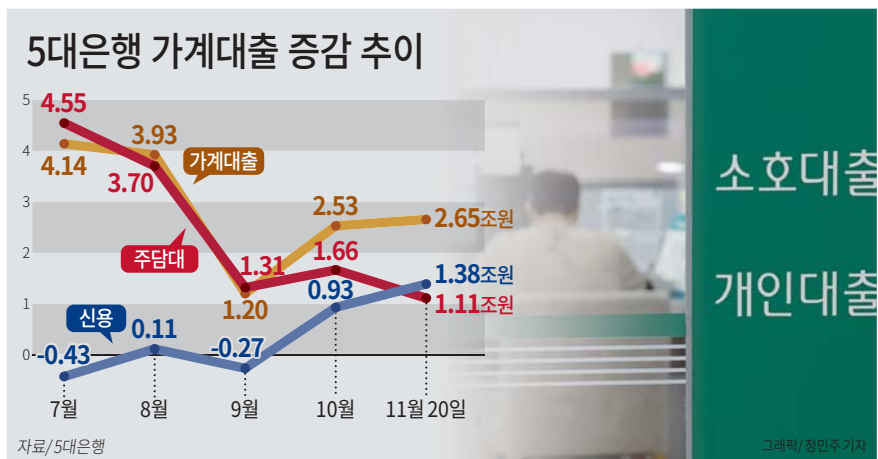
친환경 세상을 위해,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NH농협금융은 그 속도를 한 층 높이고 있습니다
전사적 친환경 활동은 물론, 친환경 기업에 투자·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농업·농촌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이념으로 성장해 온 태생적 친환경 그룹인 NH농협금융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은행 대출창구 닫힐라 연말 ‘막차 수요’ 폭발

가계대출 잔액 한달새 2.6조 늘어
주담대·신용대출 동반 확대 흐름
금리 반등 조짐에 차주 불안 가중
한은 동결 전망 속 연말변동 촉각

연말이 다가오며 은행들의 대출 한도 소진이 현실화되자,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9조2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66조6219억원)과 비교해 2조6519억원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늘어난 2조5270억원과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대출과 집담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1조7523억원으로 1조1062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1173억원으로 같은기간 1조3843억원 증가했다. 2021년 7월 이후(1조8637억원) 4년 4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은행의 대출한도 소진에 따라 대출 창구를 닫는 은행들이 늘면서 막차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구입자금용 주택담보 신규 접수를 막았다. 대면

창구에서도 24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접수를 제한한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일 기준 5대은행의 변동성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단이 6%대를 넘어섰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 연 3.93~5.33% ▲신한은행 연 3.83~5.23% ▲하나은행 연 4.46~5.76% ▲우리은행 연 3.82~5.02% ▲NH농협은행 연 3.63~6.43%를 나타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2일 이미 최고 연 6%대를 넘긴 상태다.

금융채 5년물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KB국민은행 연 4.11~5.51% ▲신한은행 연 4.00~5.41% ▲하나은행 연 4.78~6.08% ▲우리은행 4.02~5.22% ▲NH농협은행 4.35~6.05%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환율·집값 불안이 맞물리면서 대출금리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연 2.50%)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과 집값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인하 폭 확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첫 조치
성실상환 고객 최대 3%p 금리우대

우리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 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대출상환 고객에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은행은 제도 개선에 따라 새희망

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CB등급 기준) 이하인 고객에 0.3%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또한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중인 고객은 우리은행 내부등급에 따라 최대 3.0%p의 금리를 추가로 감면한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6374억원 규모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했다. 우리은행은 올해도 지난 3분기까지 5588억원을 공급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저신용자와 성실 상환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임기만료’ 제2금융권, 리더십 재편기 돌입

카드·캐피탈·상호금융 인사 주목
규제 강화 속 경영전략 수정 불가피

제2금융권이 리더십 재편기를 맞고 있다. 카드부터 캐피탈, 상호금융까지 주요 회사의 수장 임기 만료로 업권 전반의 경영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캐피탈 등 여신업 대표이사들이 올해 연말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새마을중앙회장, 신탁중앙회장 선거가 각각 내달, 내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 초 여신탁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임기는 지난 10월 5일부로 마무리됐으나, 현재 후임자 선출이 이뤄지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후임자 선출 지연 배경 중 하나로 협회장 투표권을 행사하는 여신금융협회 이사회 일부 구성원이 연말 인사 대상에 포함된 점이 거론된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이사회는 카드·캐피탈 업계 15곳의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수장 교체가 이뤄지는 곳은

롯데카드다. 롯데카드는 이달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지난 9월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기 퇴임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온 대표 이사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최원석 비씨카드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3연임을 이어 온 최 대표의 연임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씨카드의 모회사인 KT가 새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외이사과 자회사를 아우르는 인적 쇄신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캐피탈 업계에서는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기동호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가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KB캐피탈의 빈 대표는 지난해 1월 취임해 2년 간의 임기를 마쳤으며, 우리금융캐피탈의 기 대표는 올해 1월에 취임해 1년의 임기를 마쳤다. 추광식 롯데

캐피탈 대표는 지난 2021년 말 대표이사로 선임돼 약 4년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인사 시즌이 한창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내달 중에 시행되며, 이어 내달 1월 신탁중앙회장 선거가 진행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내년 3월, 김윤식 신탁중앙회장은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사 이후 금융권 수장들의 경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제2금융권을 향한 정부 규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수익성과 연체율 등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금융업계 전반적인 인사가 예정된 만큼 많은 곳에서 경영 방식 변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규제 강화 기조 아래 수익성과 건전성을 모두 챙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車 사고시 출고 5년 이하만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수리비, 기존 차값 20% 초과해야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시 출고 후 5년 이내, 직전 자동차가액 20% 초과 시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 이후 자동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분쟁은 민원이 잦은 사례 중 하나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보상액과 실제 배상가능한 금

액 기준 간에 괴리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차령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중고차시장에서의 시세 하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된다고 유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보상 청구 시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거래 시세가 하락한 금액을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관련 원칙은 차량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고 발생으로 중고차 시세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수리비용이 기존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출고 가격이 비싼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시세 하락분이 클 수 있지만, 시세 하락 보상 여부는 수리비 규모로 책정되는 만큼 관련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어도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라면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감안해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이달 마지막 주 전국 2802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성남시 ‘북정역에피트’ 등 청약
모델하우스 인선 등 8곳 오픈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280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2034가구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북정동 ‘북정역에피트’, 경기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 I·Ⅱ’,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2지구유성한내들에듀포레’ 등에서 청약

을 진행한다. 경기 성남시 북정동 일원(성남북정1지구 B1블록)에서 ‘북정역에피트’가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총 315가구 중 이주대



두산위브더제니스센터러천안 조감도.

책 대상자(3가구)를 제외한 31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북정역과 8호선 남위례역이 가깝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통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 내 이동이 편리하다. 서울 송파구와 위례신도시의 경계에 위치해 생활인프라를 함께 공유

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청약 당첨 시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금지) ▲거주의무 3년이 부여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 인천 서구 원당동 ‘인천검단호반써밋Ⅲ’,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터러천안’ 등 8곳이 오픈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터러천안’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 총 120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경부선 천안역이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경기 팽택, 안성, 오산시 등 수도권 진출 입이 용이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두근두근

❤ 두근두근 프로젝트 #3

인생의 2막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새로이 펼쳐질 인생,
든든한 미래의 설계까지
시니어금융을 맞이하는 당신을 위해

BNK금융그룹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씬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석화업계, 조달 리스크 분산 총력 에탄·해외투자·설비통합 동시 추진

납사 부담 커지며 에탄 도입 본격화
동남아 신규 단지로 생산 기반 확충
국내선 수소·재활용 중심 체질 전환
대산 설비 조정 등 재편 논의 확산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공급망 불안과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조달 리스크 분산과 사업 구조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사 중심 원료 구조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원료 조달 다변화, 해외 생산거점 확보, 공정 효율화 등 기업별 전략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지오센트릭은 최근 SK가스과 협력해 납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탄 도입을 본격화하며 원가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에탄은 납사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아 조달 리스크를 줄이고 공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로, SK지오센트릭은 이를 기반으로 에탄 적용 확대와 NCC 경쟁력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해외투자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GS칼텍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 약 2600억원을 투자한 팜유 정제시설을 완공해 가동 단계에 진입했다. 이 시설은 팜 원유(CPO)를 정제해 바이오디젤 원료와 식용유 등을 생산할 예정으로 연간 약 50만 톤의 정제 능력을 갖췄다. 생산된 팜 정제유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중국 등 인근 국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GS칼텍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를 통해 원료 확보부터 생산·판매까지 이어지는 바이오디젤 밸류체인을 평가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도 해외 공급 기반 강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질레근 지역에서 5조7000억원을 투입한 '라인(LINE) 프로젝트'가 이달 상업 가동에 들어가며 동남아 수요 증가에 대응할 대규모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해당 단지는 에틸렌 100만톤, 프로필렌 52만톤, 폴리 프로필렌 35만톤, 부타디엔 14만톤, 벤젠·톨루엔·자일렌(BTX) 40만톤 등 주요 제품을 생산한다. 현재는 초기 안정화 단계여서 단기적 실적 기여는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 중심의 안정적 수익이 기대된다.

롯데케미칼은 국내에서도 신사업·고부가 소재 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산 수소출하센터가 상업 가동을 시작해 수도권 포함 중부 지역에 고압 수소 공급을 개시했으며, 울산에서는 페PET 화학적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수에서는 첨단소재 컴파운드 공장을 통해 고내열·난연 폴리 카보네이트(PC), 난연·투명 고부가합성수지(ABS) 등 고부가 소재 생산을

확대하며 포트폴리오 전환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석유화학 구조조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논의는 여수·울산 등 주요 단지로도 확산돼 기업별 효율화 방안 검토를 가속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LG화학과 GS칼텍스도 설비 통합, 생산량 조정 등을 포함한 구조 효율화 방안을 외부 컨설팅을 통해 검토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산산단에서 진행 중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재편 작업이 먼저 윤곽이 잡히면 다른 기업들의 판단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만간 제철 일정이 진척된 만큼 이번 사례가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제네시스, 美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 선정

US뉴스, 39개 브랜드 평가 1위
G90·G80·GV70 동급 최고 성적
“10년간 프리미엄 경쟁력 증명”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제네시스는 미국 유력 매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로부터 '2026년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2026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 어워즈의 럭셔리, SUV, 승용, 트럭, 전동화, 럭셔리 전동화 등 총 6개 부문별 수상 브랜드를 발표했다.

올해는 39개 자동차 브랜드가 판매하는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신뢰도 데이터 분석, 자동차 전문 매체의 종합 의견 등을 반영해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각 부문별 최고점을 받은 브랜드에 시상했다.

제네시스는 뛰어난 품질과 안전, 세련된 디자인과 편의 기능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나란히 최종 후보에 오른 포르쉐를 제치고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특히 제네시스 대형 세단 'G90' 종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9.6점을 기록해 '거의 완벽한 럭셔리 대형 세단'이란 찬사를 받았다. 준대형 세단 'G80'과 중형 SUV 'GV70'도 동급 최고 순위를 차지해 이번 수상을 견인했다.

알렉스 크윈텐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편집장은 "제네시스는 지난 10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차량과 프리미엄 고객 경험을 꾸준히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 美 안두릴과 ASV 공동개발

설계·건조·AI 통합 추진
울산서 시제함 내년 완성

HD현대가 미국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와 손잡고 자율무인수상함(ASV)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HD현대는 최근 안두릴과 자율무인수상함의 설계·건조 및 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HD현대는 ASV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현재 개발 중인 선박 자율운항 기술 등 핵심 AI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두릴은 자율무인수행 솔루션을 탑재한다. 양사는 내년까지 ASV 시제함 개발과 건조를 마치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선점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CEO 서밋 퓨처테크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 AI 방산 분야의 혁신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 안두릴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최신 자율운항 기술을 방산 분야로 확장해 차세대 무인 함정을 개발 중"이라며 "양사의 역량이 결

집된 선박 자율운항 기술과 자율임무수행 기술이 융합되면 해군 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무인수상정 시장은 지난 2022년 9억2000만달러에서 연평균 11.5% 성장해 오는 2032년 27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한국과 미국 방산업체가 협력해 함정을 공동 개발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방산 기업과 세계 최고 조선소가 협력해 전 세계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팔머 러키 안두릴 공동설립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건조 역량을 갖춘 HD현대 울산 야드에서 우리의 첫 ASV를 건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HD현대와의 더 큰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혜운 기자 dhahledhale@

LG, 두바이 스마트시티에 AI솔루션 공급

UAE 엑스포시티와 전략 파트너십
HVAC·AI홈브로 인프라 등 확대
네옴 데이터센터 협력… 중동 B2G ↑

LG전자가 중동에서 B2G(기업·정부간) 사업을 확대하며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 공간·인프라 중심의 성장을 가속하고 있다.

LG전자는 19일 두바이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 산하 기관 '엑스포시티 두바이'와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순방행사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인공지능(AI) 기술·에너지 인프라 협력 확대의 연장선이다.

엑스포시티 두바이는 2020 두바이 엑스포 부지에 약 3만5000명이 거주하는 3.5km² 규모 스마트시티를 조성 중이다. UAE 정부가 추진하는 'We the UAE 2031' 비전 아래 AI·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 도시, 탄소중립, 고효율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LG전자는 공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지난 19일 UAE 두바이에서 엑스포시티 두바이 아흐메드 알 카티브 개발 및 공급 책임자(왼쪽)와 LG전자 조주완 CEO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공간 패키지 사업자로서 첨단 HVAC 솔루션과 AI홈 허브 기반의 스마트홈 솔루션 공급을 추진한다.

LG전자는 앞서 두바이 엑스포에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LED) 사이니지를 공급한 데 이어, 엑스포시티 내 3000세대 규모 주거 단지에 빌트인 가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동에서 B2C·B2B·B2G 전 영역을 아우르는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UAE뿐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9월 사우디 네옴시티 내 옥사곤에 건설되는 '넷제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서 냉각 솔루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지 전력회사 아쿠아파워, 유통기업 셰이커 그룹, 데이터 인프라기업 데이터볼트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LG전자는 사우디에서 1995년 셰이커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2006년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30년 가까이 현지에서 사업 기반을 강화해왔다. 최근에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며 B2G 사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35% 수준인 B2B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5%로 높일 계획이다.

LG전자 조주완 CEO는 "LG전자의 차별화된 HVAC 기술력과 AI홈 허브 기반 스마트홈 솔루션은 UAE 정부의 미래 비전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가 주도 프로젝트가 많은 중동 지역에서 신규 B2G 사업기회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美 매체 호평

올인원 콤보 분야 2년 연속 1위 선정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선보인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현지 유력 매체들로부터 잇따라 호평을 받으며 제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4월 미국에 출시한 벤트 타입 '비스포크 AI 콤보'가 최근 미국 주요 전문 매체 평가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벤트 방식은 뜨거운 공기로 옷을 건조한 뒤 외부로 배기하는 구조로 건조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며, 미국 주택 구조와 선호도에 최적화된 방식이다.

전자제품 평가 전문지 '트러스티드 리뷰'는 이달 중순 체험 리뷰를 통해 해당 제품을 '완벽한 세탁·건조가 가능한 환상적인 세탁건조기'라고 평가했다. 사용 편의성과 강력한 세탁·건조 성능

을 모두 갖췄으며 기존 단독 세탁기·벤트 타입 건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건조 종료 후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오토오픈 도어' 기능이 실사용 편의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싱스 기반 자동화 기능과 직관적인 조작 방식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가전 전문매체 '굿하우스קי핑'도 비스포크 AI 콤보 벤트 타입 제품의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며 뛰어난 얼룩 제거력과 1시간 이내 완전 건조 성능을 높이 평가했다. 공간·시간 활용도가 높은 설계, 벤트 방식 특유의 빠른 건조 시간도 강점으로 꼽았다. ▲세탁물에 맞춘 최적 코스를 제공하는 'AI 맞춤 코스' 등 사용자 경험을 강화한 기능들도 경쟁력으로 언급했다.

/정희준 기자

日 수출 中企 10곳 중 8곳, 교류확대 ‘희망’… FTA ‘필요’

중기중앙회, 경제협력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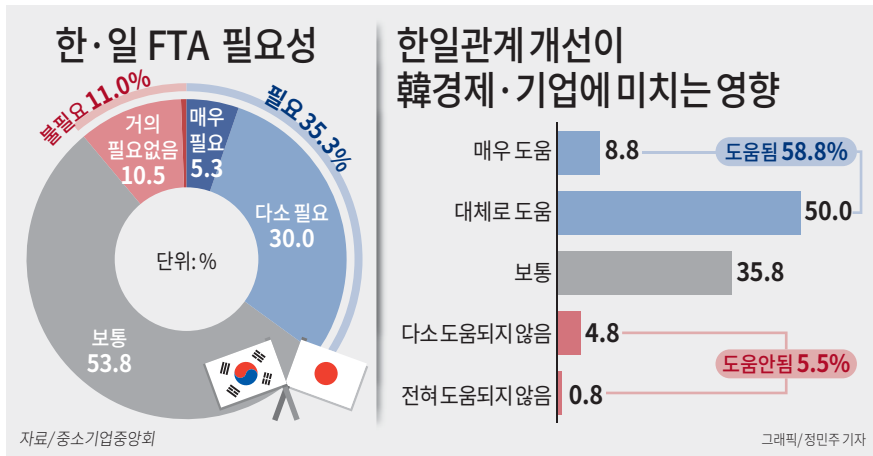
기업 66%, 양국 경제관계 ‘동등’ 24% ‘韓 선도’, 11% ‘韓 뒤쳐져’ 교류확대 의향 응답 5대 5 ‘비슷’

일본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일본과의 교류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 양국이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한다는 생각이 많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 (35.3%)가 ‘필요없다’ (11%)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이같은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한 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수출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한·일 경제협력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해 2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5.5%는 양국의 전반적인 경제 관계에 대해 ‘동등하다’고 답했다. 23.5%는 ‘한국이선도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뒤쳐진다’는 답변은 11%에 그쳤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나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8.8%가 ‘그렇다’고 밝혔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35.8%였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5.5%에 머물렀다.

‘일본과의 교류 확대 의향’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50.3%가 ‘그렇다’, 49.8%가 ‘아니다’로 절반씩 갈렸다. 다만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선 75.5%가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재 일본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의 선호도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기업들보다 높았다.

일본시장에 대한 장점(복수응답)으로는 ‘지리적 인접성’ (46.8%)과 ‘우수

한 기술력·품질’ (46.3%)이란 답변이 우세한 가운데 ‘한류 등 한국에 대한 선호’ (24.9%)도도 장점으로 꼽았다.

‘확대 희망 분야’(〃)로는 ‘수출 확대’가 82.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 ▲원·부자재 수입 확대 및 공급안정(19.9%) ▲합작투자·M&A등 대일 투자 확대(10%) ▲인적·기술교류 확대(7.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일본산 원·부자재, 부품 등 대체 완료(37.2%) ▲일본시장 자체의 낮은 매력도(28.6%) ▲양국 관계 불확실성 우려(20.1%) 등은 일본과의 교류 확대를 주저하는 이유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한일 경제 교

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전시 등 판로개척 지원’ (54.5%)이나 ‘업종별 기술·인적교류 확대’ (38%), ‘보험·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31.8%) 등을 주로 원하고 있다.

또 한일 양국이 경제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할 1순위 과제로는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이슈 공동대응’ (48.5%) ▲양자·다자간무역협정 체결 및 가입 확대(32.3%) ▲기술유출, 저가덤핑 등 신흥국과의 무역갈등 해소(8.5%)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구 구조 변화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품, 기술, 인력 등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한일 중소기업 간의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오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한·일 중소기업 경제 포럼’을 열고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중기부

모범중기인 등 5개부문 中企 유공자 포상 접수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오는 12월12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 주간(5월 셋째주)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모범 중소기업인(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5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한다.

/김승호 기자

LCC, 대형기에 ‘여객+화물’ 전략… 수익성 키운다

‘밸리카고’ 적극 활용

파라타항공, 내일부터 사업 개시 적재율 100% 채워… 경쟁력 재고 티웨이·에어프레미아도 실적 상승



파라타항공 비행기. /파라타항공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수익성 방어 전략으로 밸리카고(여객기 하부 화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기 도입이 늘면서 밸리카고 수익성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파라타항공은 24일 다낭발 인천행 WE202편을 시작으로 밸리카고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첫 투입 기체는 A330 대형기로, 첫 운항부터 페이로드(적재율) 100%를 채웠다. 계절·시황에 따른 변동이 큰 여객 수요와 달리 화물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인 만큼 파라타항공은 대형기를 앞세워 화물 경

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스웨덴 교통·환경 전문 연구기관 NTM은 A330·B777이 A320·B737 등 협동체 기종보다 최대 세 배 가까이 많은 화물을 싣는 것으로 평가한다. 협동체의 밸리카고 적재 한도가 약 19~20톤인 데 비해 A330은 46~51톤, B777은 60~70톤 수준이다.

대형기 도입 효과는 실적 변화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글로벌 물류기업 엑스트란스글로벌은 티웨이항공의 화물

처리량이 지난 2022년 말 A330 도입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2022년 7800톤 수준이던 화물 물량은 A330 투입이 본격화된 2023년 1만 6800톤으로 크게 늘었다. B787-9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에어프레미아의 지난해 총매출은 4916억 원이며, 이 중 화물 매출 비중이 약 13.2%로 나타났다.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는 전자상거래와 인공지능(AI) 서버·반도체·배터리 등 고부가 화물 증가에 힘입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기를 운용하는 항공사들은 넉넉한 화물 적재 능력을 앞세워 화물 사업 비중을 키우고 있으며, 티웨이항공은 자동차 부품·기계류 등 중량 화물을 ULD(항공화물 컨테이너)에 실어 나르며 화물 처리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의약품 운송 국제표

준(CEIV Pharma)·신선식품(CEIV Fresh)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본사의 글로벌 물류 플랫폼 기업과 협업체 전자상거래(에커머스) 운송 절차를 단순화하고 양국제·휴대폰·자동차부품 등 미국행 일반 화물 비중을 키우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아마존 에어카고와 인터라인 계약을 체결해 인천~호놀룰루 구간을 맡으며 미주 화물 노선도 넓혔다. 파라타항공은 글로벌 물류기업 엑스트란스글로벌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 구조를 마련했다.

기단과 전략이 다른 저비용항공사들도 밸리카고를 통해 화물사업 저변을 넓히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부터 밸리카고 운송을 본격화해 전자상거래·전자제품·자동차 부품 등을 주로 싣고 있다. 제주항공도 여객기 밸리카고를 활용해 화물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리얼월드 류중희 대표(오른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리얼월드 ‘물류 AI 휴머노이드’ 공동개발 업무협약

CJ대한통운이 리얼월드와 전략적 협업을 체결하고 물류 AI 휴머노이드 연합을 본격 확대한다.

23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피지컬AI 기업 리얼월드(RLWRLD)와 ‘물류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obot Foundation Model)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략적 시너지 강화를 위한 시드2(Seed2) 라운드 지분 투자에도 참여한다.

이번 투자 및 사업협력을 통해 양사는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뇌’ 역할을 하는 RFM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현장 실증 및 상용화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물류센터 내 로봇 자동화가 가능한 공정을 발굴하고, 기술 실증 및 사업성 검증을 주도한다. 또한 실제 물류 현장에서 축적되는 파킹분류·포장 등 작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RFM이 학습하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얼월드는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고정밀 로봇핸드 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물류용 RFM 개발에 들어간다. /김승호 기자

‘K-벤처’ 30주년… 제1회 벤처주간 26일 개막

중기부 ‘벤처주간’ 법제화 계획

올해로 30년을 맞은 대한민국 벤처가 혁신축제를 열고 ‘K-벤처정신’을 다시 한번 다진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제1회 벤처주간’으로 정하고 서울 등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중기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해 향후 벤처주

간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벤처 30주년과 모태펀드 출범 20주년을 함께 맞는 특별한 해다. 정부는 그동안 벤처·스타트업에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자금·기술·인력 등 전 분야에서 과감한 지원을 이어왔다. 아울러 청년과 미래세대에 혁신과 도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제정(1997년), 모태펀드 결성(2005년), TIP

S 지원사업 시행(2013년),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2020), 벤처투자법 제정(2020년) 등 굵직한 이정표를 제시하며 우리 경제사의 여러 변곡점 속에서 늘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성장 흐름을 견인해 왔다.

올해 처음 여는 벤처주간 역시 지난 30년간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온 성과를 공유하고, 현재 시점에도 ‘K-벤처’가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성장엔진임을 환기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창신세기존부터 쇼케이스까지… 20년간 누적된 세계관·팬덤

르포

던파 페스티벌 2025

창신세기존 중심 세계관 재해석
히스토리존서 20년기록 압축전시
쇼케이스로 신규 업데이트 공개
확장 프로젝트 모아 참여도 강화

20주년을 맞은 ‘던파 페스티벌 2025’가 역대 최대 규모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넥슨은 확장된 IP·창작 생태계·체험형 프로그램으로 20년 팬덤의 존재감을 다시 증명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던전 앤파이터’(던파)의 오프라인 행사 ‘던파 페스티벌’을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던파 페스티벌’은 ‘20th ANNI VERSARY’이라는 부제 아래 20년간의 서비스 여정을 되돌아보고 이용자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20주년을 맞은 ‘던파 페스티벌 2025’가 역대 최대 규모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22일 오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픈 시간 전부터 긴 대기열이 행사장 외곽을 따라 늘어선 있었다. ‘2025 던파 페스티벌’ 첫날을 맞아 모험가들은 굿즈백을 어깨에 멘 채 삼삼오오 모여 전시장 입장을 기다렸다. 팬들은 “20주년이지만 큼 이번 행사만은 직접 와보고 싶었다”며 설렘 섞인 표정을 지었다.

입장 직후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곳은 10홀 메인전시였다. 세계관의 기원을 재해석한 ‘창신세기존’과 20년 업데이트 기록을 정리한 ‘History of ARAD’ 전시는 팬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 됐다. 특히 리마스터링 OST가 흐르는 청음 공간에서는 팬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리는 모습도 보

였다.

한편 ‘모험가 VS 스노우메이지’ 미니게임존에서는 참여자들의 환호가 이어졌고, 이용자 창작품이 진열된 ‘플레이마켓 시즌7’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페스티벌은 20주년을 맞아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넥슨은 이번 행사를 ‘20th ANNIVERSARY’라는 부제로 꾸미고, 첫날인 22일 밤 겨울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쇼케이스를 배치했다. 쇼케이스는 성승헌 캐스터 진행으로 열렸으며 네오플 박종민 총괄 디렉터가 2026년 상반기 업데이트 계획과 콘텐츠 방향성을 공개했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20주년 기념 콘서트, 신규 콘텐츠를 소개하는 ‘콘텐츠 미리보기’, 파랑파핑 미니게임 최강자전 등 다양한 참여형 무대 행사도 이어졌다. 양일간 총 2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전시·체험·무대 중심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배치됐다.

특히 올해는 ‘던파 모바일’, ‘카잔’,

‘사이퍼즈’ 등 DNF 기반 프로젝트를 한 자리에 모은 ‘던파 페스티벌 EX’가 별도 공간에서 꾸려졌다. 이곳에서는 DNF IP 기반 미니게임 체험, OST 청음존, 세계관 관계도 전시, ‘월리를 찾아라’ 협업존 등 확장된 콘텐츠 라인업이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치지직 스트리머들이 대거 방문해 현장 무대를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장을 찾은 한 이용자는 “20년 동안 해온 게임이지만 이렇게 IP가 넓어졌다는 걸 직접 보니 새삼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박종민 ‘던파’ 총괄 디렉터는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20년 동안 모험가들이 함께 쌓아올린 여정 자체에 바치는 헌정의 무대”라고 말했다. 그는 “팬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콘텐츠 속에서 자신이 ‘던파’와 함께 걸어온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20년의 기억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브로드밴드가네이버페이,하나은행과 소상공인 상생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오른 쪽부터 권정훈 SK브로드밴드 SOHO&SE 담당, 서유석 하나은행 부행장, 이항철 네이버페이 책임리더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SKB-네이버페이-하나은행 Npay 커넥트 기반 소상공인 지원 맞손

SK브로드밴드가네이버페이,하나은행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세 회사는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결제 단말기 ‘Npay 커넥트’를 기반으로, 통신·결제·금융을 결합한 소상공인 지원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Npay 커넥트’는 현금·신용카드·QR 결제·삼성페이·애플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하며, 영수증 없이 네이버리뷰 작성, 쿠폰 발급, 포인트 적립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부가 기능도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신규 가입 또는 재약정 소상공인이 단말기를 신청할 경우 설치 부담을 줄이고 인터넷 및 Btv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는 행은 금융 수수료 및 금리 혜택을, 네이버페이는 결제 인프라와 마케팅 채널을 맡아 소상공인 운영 비용 절감과 매장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3사는 향후 공동마케팅, 지역 기반가맹점 지원, 통신·금융 결합 혜택 확대 등 단계적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사업장 피해를 보상하는 ‘든든 인터넷’ ▲한 회선으로 최대 10대까지 이용 가능한 ‘쉐어 인터넷’ ▲인터넷 요금 최대 40% 할인 등이 포함된다.

/김서현 기자

15세부터 67세까지… AI 활용 능력, 생활기술로 확장

카카오 ‘AI 톱 100’ 경진대회 사회적 난제 대응 등 새 가능성 확인

카카오가 전국의 인공지능(AI) 실력자들과 함께 AI 기반 문제 해결 실험의 첫 발을 내딛었다.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는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캠퍼스에서 ‘AI 톱 100’ 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증폭시키고, 일상 문제 해결에서 사회적 난제 대응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예선은 지난달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테크 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자영업자, 소방관, 농부, 창업자,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



카카오 AI경진대회 참가자 및 수상자 등 전체 단체사진

/카카오

이 참여했다. 연령대도 15세부터 67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AI 기술의 대중성을 입증했다.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오른 100명 또한 고등학생부터 중년 직장인까지 폭넓었다. 비개발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며 AI 활용 능력이 특정 전문가 영역을 넘어 생활기술로 확장되

고 있음을 보여줬다.

본선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출제 방식’이었다. 일상에서 실제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참가자가 AI도구를 활용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전임자가 남긴 방대한 자료만으로 새로

운 기획 문서를 신속하게 작성하는 과정가 대표적이다.

시상 규모는 총 1억5000만원이다. 대상 1명 3000만원, 금상 2명 각 1000만원, 은상 3명 각 500만원, 동상 4명 각 250만원, 그리고 특별상 총 2500만원이 주어졌다.

/최빛나 기자

‘해킹 여진’ 지속… SKT, 법정공방·대규모 쇄신 단행

배상 조정안 불수락 의견서
“법적 절차 통해 소명 할 것”
임원 30% 감축 등 조직개편

지난 4월 발생한 사상 초유의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진이 SK텔레콤을 계속 흔들고 있다. 천문학적인 배상금 우려에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3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임원 30%를 감축하는 고강도 쇄신안까지 발표됐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 불수락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3일 해킹 피해를

입은 가입자 3998명이 제기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총 12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SK텔레콤이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강수’를 둔 배경에는 배상 규모에 대한 현실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유사한 피해를 입은 2300만명 전 가입자로 배상 요구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추산되는 배상금은 최대 7조원에 달한다. 이미 1조원 가량을 피해보상 및 대응 비용으로 지출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과거 메타(페이스북) 역시 분조위의 30만원 배상 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전을

택한 끝에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 각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SK텔레콤 측은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취한 선제적 보상 조치(분조위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태의 충격은 실적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SK텔레콤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9% 폭락했다. 당기순이익은 1667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는 8월부터 시행된 통신 요금 50% 감면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비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8억원의 과징금이

반영된 결과다. 김양섭 SK텔레콤 CFO는 “창사 이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예측하지 못한 경영 환경으로 3분기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위기 타개를 위해 SK텔레콤은 조직에 칼도 댔다. 임원 규모를 약 30% 감축하고, 통신(MNO)과 인공지능(AI) 양대 축으로 사내회사(CIC) 체제를 도입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보안 신뢰 회복을 위해 CEO 직속으로 ‘통합보안센터’를 신설하고 보안 관련 조직 규모를 2배로 늘렸다.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관제 및 탐지 역량을 강화했다. SK텔레콤은 뼈를 깎는 쇄신과 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성과를 통해 내년부터 실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IMA’ 2라운드 돌입… 1호경쟁·연말인가 변수에 시장 출렁

한투·미래에셋 8년 만에 첫 인가 연말 ‘1호’ 출시 심사 경쟁 본격화 조달 레버리지 최대 300%로 확대 안정·실적배당형 전략 차별 가속화 추가 인가·리스크 점검이 핵심변수

종합투자계좌(IMA)가 8년 만에 첫 사업자를 배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두 가지’로 쏠리고 있다. 누가 IMA 1호 상품을 먼저 내놓을지, 그리고 어느 증권사가 다음 IMA·발행어음 인가를 받을지다. 두 축이 맞물리며 연말 자본시장에 사실상 ‘2라운드’가 열린 셈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IMA 업무를 허용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받아 기업대출·회사채·프리IPO 등 기업금융 자산에 70% 이상 투자하고, 대신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예금보다 높은 연 4~8%대 중수익을 목표로 하면서도 사실상 원금이 보전되는 특성이 알려지며 투자자들



미래에셋증권.

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정 직후 두 회사는 곧바로 약관·투자설명서 심사에 들어갔다. IMA는 금융감독원이 상품의 구조·위험등급·운용방식을 정밀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에 심사를 가장 먼저 통과한 한 곳



한국투자증권

/각사 제공

이 ‘IMA 1호’ 타이틀을 갖는다. 실제 시장에서는 12월 초중순 출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략은 같긴다. 한국투자증권은 안정형 상품을 우선 출시하는 계획이다. 초기에는 국내 기업금융 중심 구성으로 신

뢰 확보에 집중한 뒤, 수요에 따라 배당형·프로젝트형·성장형 등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첫 상품부터 실적배당형 구조를 택했다. 해외대체투자·글로벌 IB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장성이 높은 자산을 담아내겠다는 전략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안정성’과 ‘수익성과 차별성’의 대결로 보고 있다.

이번 인가로 두 회사의 운용 가능 재원도 크게 넓어진다. IMA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추가 조달이 가능해 기존 발행어음 조달(200%)과 합치면 최대 300%까지 확대된다. 3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은 한국투자증권 12조219억원, 미래에셋증권 10조4586억원이다. 두 회사가 새로 확보 가능한 조달 규모만 10조~12조원대에 이른다. 조달금의 일정 비중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A등급 회사채·중견기업 대출은 실적 인정 비율이 제한된다.

동시에 시장의 관심은 ‘다음 순서’로 향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IMA 인가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삼성·메리츠·신한·하나 등 대형사의 발행어음 인가

여부도 연내 결론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IMA 1호 경쟁과 추가 인가 판정이 거의 같은 시점에 맞물리면서, 조달 구조와 리테일·IB 체계가 각각 어떻게 재편될지가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됐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감독원도 ‘속도전’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무리한 출시를 막기 위해 IMA 전담 TF를 운영하며 약관·설명서·리스크 구조를 초기 단계부터 직접 들여다보고 있다. 첫 상품이 투자자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려는 조치다. 최근 해외펀드 전액손실 사례로 판매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점도 감독 강화 배경으로 지목된다.

연말에 정해질 IMA 1호와 차기 인가 대상은 내년 증권사 자금 운용 방향을 결정짓는 첫 단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초기 상품 구조와 조달 규모가 사실상 시장 기준이 되는 만큼, 후발 주자들의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BK 홈플러스 관련 ‘직무정지’ 사전 통보

금감원, GP 중징계 착수절차 돌입
홈플러스 RCPS 변경 조사 집중
국민연금 위탁사 영향 가능성 확대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계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불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자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허정윤 기자

“방치 된 카드포인트 자동사용으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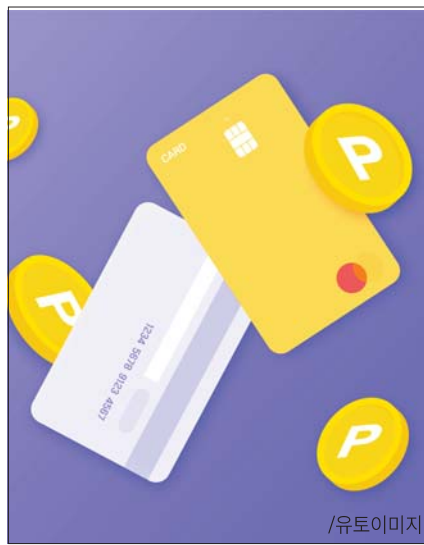
금감원 Q&A

명세서 기반 원스톱 사용 서비스
문자알림·교육·통합조회 홍보 강화

곧 소멸될 카드포인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돼 왔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소멸 예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포인트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 사용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포인트를 확인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소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 소멸된 카드포인트 규모는 약 15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포인트 소멸을 줄이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모든 카드사로 확대 도입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손쉽게 신청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65세 이상)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동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나 A 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한 ‘포인트 원스톱(One-stop) 사용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카드사들은 현재 표준약관에 따라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명세서에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지만, 단순 안내에 그쳐 소비자가 실제로



/유투이미지

포인트를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이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와 홍보·교육도 강화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명세서를 통해서만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어, 명세서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소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문자 메시지나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가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됩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즉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소비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카드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고령층 대상 자동사용 서비스는 충분한 사전 안내와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허정윤 기자

NH투자證, 국내 첫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금융기관 참여허용 시장 저변확대
대출·거래 연계 ‘기후패키지’ 구축

NH투자증권이 24일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가 배출권 시장에 증권사 등 제3자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배출권시장의 문이 금융권까지 열리면서 국내 탄소시장 구조가 한층 다변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NH투자증권과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NH농협은행에서 시설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 우

대 등 맞춤형 설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의 ‘기후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했다.

윤병은 NH투자증권 대표는 “기업 보유 배출권을 전략 자산군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은행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기업이 친환경 투자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구조로 추진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본격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추진에 따라 금융기관의 시장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위탁

매매를 24일부터 시작한다. 위탁매매 시행으로 시장참여자들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 편리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3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기도 했다.

위탁매매 시행 전까지는 개별 시장참여자가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야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에는 배출권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이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 골자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의 시장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韓 GDP 1.2%, OECD 3위 올라 “회복세 뚜렷… 내년 개선폭 확대”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뒤이어
일본 -0.4%로 최하위로 밀려
이탈리아 0%, 캐나다 0.1% 그쳐

우리나라가 실로 오랜만에 경제성장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분기별 성장 비교이고 아직 올해 3분기 수치의 취합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를 달리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는 중간순위 1위다.

23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분기와 비교해 1.2% 증가했다. 1%를 넘는 국가는 4곳뿐인데 이스라엘(3.0%), 코스타리카(1.3%)에 이어 한국이 3위, 스웨덴(1.1%)이 4위에 자리했다.

총 38개 회원국 가운데 이날까지 26개국 수치가 공개됐다. 이 중 일본(-0.4%)이 최하위로 처지는 등 경기가 2분기에 비해 후퇴한 국가가 6곳이나 됐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에 크게 앞섰다. 일본 역 성장을 비롯해 독일과 이탈리아가

0.0%로 제자리걸음 했고, 캐나다와 영국 GDP도 각각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위권에서도 멕시코 -0.3%, 네덜란드 0.4% 등으로 나타났다. 유로존 국가 평균은 0.2%였다.

1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경우, 직전 분기 역성장(-1.1%)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2분기 0.7% 성장에 이어 3분기에 1.2%로 GDP 증가세가 더 뛰었다. 경제규모 20위권 밖인 이스라엘과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한국 성장률이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가장 컸다.

이밖에 프랑스 경제가 0.5%, 스페인이 0.6%, 포르투갈이 0.8% 성장했다. 미국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G20 협의체 중에서도 중국(1.1%)을 넘어서며 인도네시아(경제 규모 세계 16위)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이날 기준 총 19개국 가운데 10곳이 3분기 수치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2022년부터 최근 15개 분기 동안 1%대 성장이 총 2회(이번 분기 포함)에 불과했다. 역성장이 3회(2022년 4분기, 2024년 2분기, 2025년 1분기)나 됐고 일본에도 여러 번 뒤졌다.

국내외 각 기구·기관은 한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이 1.0%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1% 미만을 예측하는 곳도 많았다. 1분기(-0.2%) 경제가 뒷걸음질한 데다 미국발 관세정책 등에 따라 다소 회의적인 관측이 그간 우세했다.

하지만 2, 3분기 연속 호조에 따라 4분기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 연간 기준으로도 일본보다 나은 수치를 내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1% 선은 무난히 지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이 일부 낙관론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3분기 GDP 속보치(1.2%)가 한국은행의 예측치(1.1%)를 넘어선 데 있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고 반도체 등의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기구·기관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언론 설명회를 갖고, 반도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선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지난 21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KOSPO AI창업이음센터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박영철 기획관리부사장(가운데), 김경민 AIDigital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협약기관 대표 및 예비창업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남부발전, AI 혁신기업 창업·사업화 지원

‘AI창업이음센터’ 지원사업 협약

한국남부발전이 지역 AI 혁신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섰다.

남부발전은 지난 21일 부산 본사에서 ‘AI창업이음센터’ 지원사업 협약식을 열고,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AI 혁신 벤처기업의 서비스 사업화와 창업 창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고객응대 근로자 피로도

진단 AI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AI 기반의 민·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남부발전은 지역 AI 벤처기업인 망고클라우드, 나라인포테크 및 한국해양대와는 ‘AI 서비스 사업화 지원 협약’을, 지역 예비창업자(기업명 가칭 Solar PK) 4인과는 ‘창업 지원 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AI 산업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쓰는 천일염과 새우, 굴, 멸치 등 젓갈류를 비롯해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 고등어, 오징어, 아귀, 주꾸미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업체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 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

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 사이버공격 방어훈련 ‘일렉콘’ 개최

남동발전 ‘KOEN’팀 일반부 우승

한국전력은 지난 19일~20일까지 나주혁신도시 본사에서 국정원 지부와 공동주관으로 ‘제5회 ELECCON(Electric sector Cyber CONtest, 이하 일렉콘) 20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렉콘은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으로, 공격 1팀, 운영 1팀, 방어 32개팀으로

구성된다. 훈련은 실제 에너지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축된 가상 환경에서 공격팀과 방어팀이 실시간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기관 8개팀과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일반부 8개팀, 대학부 8개팀, 고등부 8개팀이 참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참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분야를 새로 추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LFP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나서

순환경제 신기술 3건 규제특례

정부가 전기차 등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증에 나선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LFP 배터리에 맞는 재활용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9일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 3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장소에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식 인지도’ 베이징·자카르타 85% 최대

농식품부, 해외 한식소비자 조사
주요도시 평균 68.6%로 2.9%p↑
브라질 상파울루 44%, 로마 20%

외국인들의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중국 베이징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인의 한식 인지도가 각각 85% 수준에 달한 반면,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에서는 50%대에 그쳤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20% 선을 밑돌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해외 한식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도시 22곳에서 현지인 각각 500명씩 총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도시에서의 한식 ‘인지도’ 평균은 68.6%로, 전

년도(65.7%)에 비해 2.9%포인트(p) 올랐다. 도시별로 베트남 호치민(86.4%), 베이징(85.4%), 자카르타(84.8%), 싱가포르(80.2%) 등지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이에 반해 뉴욕과 도쿄 현지인의 인지도는 각각 59.6%, 54.0%에 머물렀다. 브라질 상파울루(44.4%)와 로마(19.6%)에선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75.6%)과 대만 타이베이(74.6%), 호주 시드니(69.0%) 등이 평균치인 68.6%를 조금 상회했다. 이 밖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67.6%, 영국 런던 64.8%, 프랑스 파리 62.4%, 멕시코 멕시코시티 61.6%, 독일 베를린 60.6% 등이다.

인지도는 ‘매우 잘 안다’와 ‘안다’, ‘아는 편이다’를 합한 비중이다.

현지인의 ‘한식당 만족도’의 경우,

런던(96.4%)과 베이징(96.4%), 뉴욕(96.3%)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쿄(72.2%), 로마(85.4%), 파리(87.5%) 등은 평균(93.1%)보다 낮았다.

최근 1년간 현지 한식당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71.7%로 나타났다. 한식당에 가 본 사람의 93.1%가 만족했고 이 중 90.7%는 다시 찾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한류 콘텐츠를 경험한 후 한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6.7%, 한식을 먹어본 적 없지만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응답이 18.4%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올해 6월30일 기준 22개 도시에 거주하는 20세부터 59세 사이 현지인으로 월 1회 이상 외식 경험자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지역난방공사, 재난대응 상시훈련 실시

서울시·마포구청·마포경찰서 등 협력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지난 21일 중앙지사 관내에서 민·관·공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주민 체감형 안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중앙지사 관내 난지캠핑장에서 진행됐으며, 열수송관 파손으로 인한

증기 누출 상황을 가정했다. 서울시,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발생 시 현장 통제와 긴급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대피 요령과 현장 통제 협조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난방 보조기구 배부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에 참여한 정용기 한난 사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맞닿아 있는 열수송관 파열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시에는 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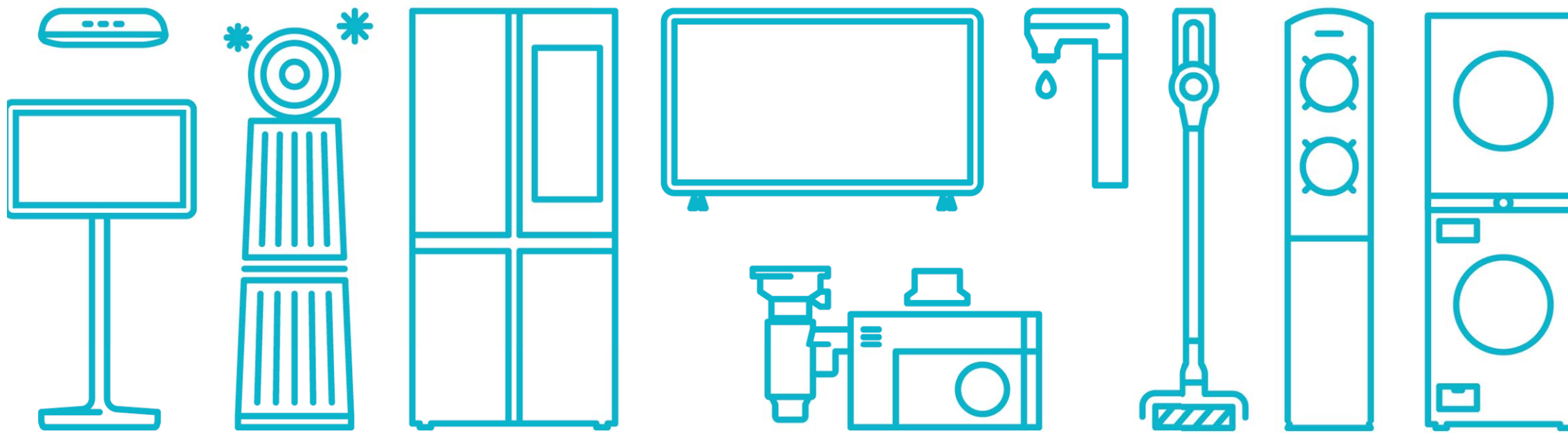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1일 민관공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한난

기관과 지역주민의 신속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상시훈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더욱 견고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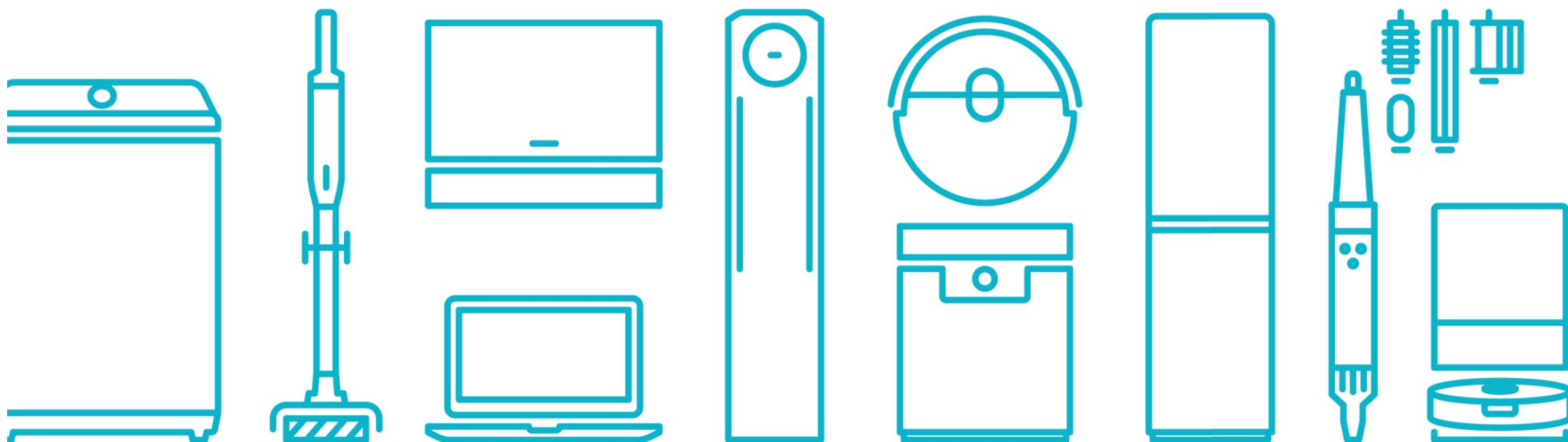
/세종=한용수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만경강 거닐며 천년고찰 심표… 봉동생강차 한잔에 피로삭

로컬 여행

전라북도 완주군

서울에서 KTX로 두 시간 거리
자전거 투어 등 즐길거리 풍성
봉동생강, 독특한 맛·향 자랑

KTX로 서울에서 불과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전라북도 완주의 여행길은 마치 시골길을 걸으며 듣는 바람 소리처럼 잔잔한 여운을 주는 여행이다.

이번 여정에서는 삼례문화예술촌, Wanta 자전거 투어, 그리고 송광사를 향한 여행을 계획하며, 완주의 자연과 문화를 담아 보았다.

◆역사가 깃든 문화와 예술의 마을 ‘삼례문화예술촌’

삼례문화예술촌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과 동시에, 현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난 곳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탈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거대한 곡물창고들이 현재는 전시장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과거 미곡창고였던 건물을 개조하여 만들었다



삼례문화예술촌.

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 공간이 담고 있는 무거운 역사의 흔적과 반대로 사람들로 가득 찬 활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바람을 타고 느끼는 완주 자전거 투어
삼례를 뒤로하고, 완주의 풍성한 자연을 느끼기 위해 ‘Wanta 자전거 투어’를 시작했다.

비비정은 완산팔경 중 하나로, 그 이름은 “기러기가 쉬어가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오고, 그들이 강 기슭에 앉아 쉬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비비정에서 바라본 풍경은 만경강의 수려한 물줄기와 자연이 어우러져 자전거 여행의 강한



만경강 풍경.

인상을 남긴다.

◆역사 속 고요한 명상의 공간 ‘송광사’

완주 여행의 마지막 여정은 깊은 역사와 공존하는 송광사(松廣寺)다. 중남산 기슭에 자리한 송광사는 신라 경문왕(867년)때 창건된 고찰로, 임진왜란때 전소되었다가 수차례 재건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는 천년 고찰이다.

송광사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웅전은 흙으로 빚어 만든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274호)’을 모시고 있어 그 크기와 화려함에 눈길이 멈춘다.

조선 후기의 건축미를 보여주는 독특한 십(十)자형 구조가 돋보이는 종루는 송광사의 또 다른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다. 지금은 보수 공사중이다.



송광사 풍경.

◆천년의 전통을 담은 금보다 귀한 ‘봉동생강’

완주를 여행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봉동생강’이다. 봉동은 600년 이상의 생강 재배 역사를 가진 천년 고장으로, 그 역사는 단순히 길지만 한 것이 아니라 농업의 위기를 극복해온 자연 친화적 전통 농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봉동 생강은 일반 생강과는 다른 독특한 재배법과 저장 방식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생강의 가장 큰 천적인 ‘뿌리썩음병’에 대처하기 위해 봉동 농가들은 화학비료 대신 전통 생태 농법을 고수하며 자연과의 공존을 선택했다. 봉동 생강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독특한 단맛과 깊은 향을 자랑한다.

◆로컬푸드의 매력

봉동 생강을 이용하여 완성된 다양한 음식과 음료로 여행 중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삼례에 자리한 아담한 카페 ‘커피한잔’을 찾았다. 이 카페의 특색은 완주 봉동 생강을 사용해 만든 진짜 생강차다.

한 잔을 마시는 순간, 그 특유의 따뜻함과 고유의 진한 풍미, 그리고 은은한 단맛이 온몸을 감싸주며 하루의 피로를 녹여준다.

완주 미식 투어는 용산역에서 KTX로 출발해 익산역에서 연계 버스로 투어를 진행한다. 현재 ‘여행공방’과 완주군이 의기투합해 론칭을 준비 중이다.

/최규준 기자 ch9720@metroseoul.co.kr

안동시, ‘ABC산업’ 도시 혁신 박차

‘안동형 일자리사업’ 성과 이어져
백신 분야 등 ABC산업 고도화 집중

안동시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안동형 일자리사업이 지역 기업 성장과 청년 인재 양성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지역 산업 혁신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을 농식품(A)·바이오(B)·문화관광(C) 산업을 핵심 축으로 하는 ‘ABC 산업 재도약의 해’로 선언하고 사업 전반의 고도화에 나선다.

안동형 일자리사업은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해 기업지원, 창업지원, R&BD, 인재양성,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는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지난 4년간 ▲384개 기업과 30개 창업 기업 지원 ▲전문인력 927명 양성 ▲인턴십 참여자 204명(채용연계율 38%, 고용유지율 46%) 등 실질적 성과가 나타났다. 총 444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됐



으며, 지식재산권 88건, 12개 기업 유치 등 기술 성과도 의미있는 수준이다. 아울러 최근 성과조사에서는 참여기업의 64.8%가 매출 증가를, 79.1%가 고용유지 또는 확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사업이 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줬다.

내년은 사업 강화기의 마지막 해로, 안동시는 ABC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 고도화에 집중한다. 특히 백신, 헬프, 친환경소재, 스마트팜 분야 기술개발 사업 강화와 차세대 mRNA 백신 생산기반 구축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사진)은 “2026년에는 ABC산업 중심의 고도화를 통해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북도, 포항~울릉도 ‘썬라이즈호’ 투입

정원 442명, 약 3시간 40분 소요

경북도는 동절기 내륙과 울릉을 오가는 유일한 객선인 뉴시디오펠호(1만 1515톤, 정원 1200명)가 12월 9일부터 2주간 정기 검사에 들어감에 따라 대체선으로 썬라이즈호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울릉군과 함께 여객선사와 두 차례 대책 회의를 열고 “항로 단절만은 막겠다”는 공동 목표 아래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객선사들도 울릉도 주민의 일상

생활과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경영 필요성에 공감해 울릉루즈(와)와(와)대저페리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썬라이즈호 투입을 결정했다.

대체선으로 운항하는 썬라이즈호는 정원 442명의 쌍동쾌속선으로, 포항에서 울릉까지 약 3시간 40분이 소요된다. 뉴시디오펠호보다 흔들림이 있어 승선감은 다소 불편하지만 운항 시간이 약 3시간 단축돼 주민들의 일상 업무와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경남도, ‘우주항공·방산 융합 콘퍼런스’ 개최

‘SERESSA’ 연계… 세계 석학들 참여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경남에서 세계 석학들이 참여해 ‘K-방산과 미래 우주항공 기술’의 융합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경남도, 사천시와 공동으로 24일 오전 10시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우주항공·방산 국제 융합 콘퍼런스 2025’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SERESSA 2025와 연계해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K-방산 수출 확대와 누리호 4차 발사라는 의미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외 우주항공·방산 전문가, 학계 연구자, 산업계 실무자, 정책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남(진주·사천)이 글로벌 우주항공·방산 클러스터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학교·학생, 국가기술자격 최다 수상

경북교육청 7개 학교, 12명 수상

경북교육청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교·우수학생 선정에서 학교 분야 전국 35%, 학생 분야 전국 65%의 수상 비율을 기록하며 전국 최다 수상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것으로, 선정 규모는 17개 시도교육청별 고용노동부 장관상(학교 1교, 학생 1명)과 시도교육청 구분 없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학교 1교, 학생 1명)이다.

학교 분야에서는 경북항공고등학교(영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은 경북 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영천), 금오공업고등학교(구미), 문경공업고등학교,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경주),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영주) 등 총 7개 학교가 수상했다.

학생 분야에서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학생 1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9명,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1명, 경북항공고등학교(영주) 1명 등 총 12명의 학생이 수상해 학교 분야(17개교 중 6개교), 학생 분야(17명 중 11명) 모두 전국 최다 수상의 성과를 기록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美 아트 페스티벌

부산시는 24~25일 양일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부산 미(美)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용인 간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부산의 우수 미용 인재를 발굴해 미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헤어·피부·네일 미용 분야별 기능 경진대회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골목상권, 함께 지켜요”

포항시는 오는 25일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 공감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의 힘과 연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골목상권·관광·디지털 전환·도시재생을 연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청송군, 국제 역노화 포럼

청송군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소노벨 청송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가톨릭대학교 AI역노화연구원과 함께 ‘2025 청송 국제 역노화 포럼(International Reverse-Aging Summit 2025)’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송군이 추진 중인 ‘K-U시티 역노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독일, 홍콩 등 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gbnnews8082@

“中日갈등에 韓 무비자… 유커가 돌아온다”… 유통가, 미소

日 총리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中, 日 압박에 여행 취소율 80%

다이소 명동점, 알리·위챗 결제 ↑
백화점·면세점, 외국인 소비 증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동북아 외교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발길을 돌려 한국을 대체지로 선택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앤데미 이후 더딘 회복세에 고심하던 국내 유통업계는 때 아닌 어부지리에 반색하고 있다.

23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 19일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양국의 냉각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후 일본 여행 취소율은 80%를 넘어갔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 상영과 아이돌 그룹 팬미팅이 취소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세븐일레븐이 롯데면세점과 손잡고 위챗페이 프로모션을 펼치는 모습. 중국인 관광객 대상 접근성을 높이며 관광 수요를 잡는데 힘쓰고 있다. /세븐일레븐

있다.

일본 입장에서 중국의 불매운동은 골칫거리다. 일본 경제지니혼게이샤자인문(닛케이)은 올해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소비가 2조엔(약 18조74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로 증가세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인 소비가 전체 방일 관광객 소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던 만큼 일본 관광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일본이 잃은 관광객 수요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에 따르면 이달 15일과 16일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인 해외 여행지 검색과 결제 모두 1위에 올랐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환율도 유리한 환경이다. 위안화가 지난해 하반기 이래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2014년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후 사상 최고치인 207원대까지 올랐다. 중국인 관광객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한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유통업계는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효과로 활기를 찾은 상황에서 겹경사다. 다이소 명동역점의 경우 10월 한 달간 알리·위챗·은련페이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0% 급증했다. 11월(1일부터 19일까지) 들어서는 신장률이 200%까지 치솟았고, 결제 건수 역시 130% 늘었다.

백화점과 면세점도 외국인 소비 증가로 3분기 호실적을 맞았다. 3분기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외국인 매출이 56% 늘었고, 롯데백화점은 34%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은 6년 사이 외국인 매출 비중이 4배 증가했다.

3분기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은 흑자를 기록했고,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적자 폭을 전년 동기 대비 각

각 387억원, 106억원 줄였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까지 겹친다면 4분기 백화점과 면세점 모두 더 좋은 실적이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제 편의성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모션을 통해 관광객 증가를 소비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DS투자증권 김수현 연구원은 최근 ‘한일령(限日令)’이 바뀔 여행지도, 수혜주는 한국에 있다’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기 부진 속에서도 일본을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닌 ‘주변국’으로 인식해 강경 조치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일령 기조가 내년 춘절(중국 기준 내년 2월 17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9월까지 누적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351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79% 수준에 그치며, 사드 보복 이전인 2016년 대비 55% 정도인만큼 한일령을 기점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맥심, 감성·경험 중시 ‘MZ세대 소통’ 강화

동서식품 ‘컬러 오브 맥심’ 패키지
타월·슬리퍼·컵 등 생활굿즈 선택

동서식품의 ‘맥심(Maxim)’이 출시 40여 년을 넘어 세대 교체 속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일상 속 행복’을 전하는 브랜드 정체성과 이를 확장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자리한다. 최근 소비자들이 기능성보다 감성·경험을 중시하는 ‘필코노미(Feelconomy)’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맥심은 브랜드 메시지를 ‘색다른 재미’와 경험 중심으로 재해석하며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서식품은 최근 ‘행복에도 컬러가 있다면’이라는 콘셉트의 ‘컬러 오브 맥심’ 스페셜 패키지를 선보였다. 맥심 모카골드·화이트골드·슈프림골드의 시그니처 컬러를 활용한 타월·슬리퍼·컵 등 생활굿즈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경험하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컬러 오브 맥심 한정판 패키지. /동서식품

종이컵 사용 습관을 유형별로 나눈 ‘MCTI(Maxim Cup Type Indicator) 컵 굵조’ 역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며 젊은 소비층의 참여를 이끌었다.

해당 컵은 ▲단 한 번도 종이컵을 구기지 않고 사용하는 ‘완벽형’ ▲마시자마자 종이컵을 습관처럼 구겨버리는 ‘과괴형’ ▲종이컵 입구를 살짝 당겨 마시는 ‘개방형’ ▲종이컵 테두리를 씹으며 불안을 넘기는 ‘불안형’ 총 네 가지 종류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MCTI 컵 굵조’ 후기를 온라인에서 공유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맥심의 컬러 경험’을 정의하는 재미를 확산시키고 있다. 카카오프렌즈·미니언즈 등 인기 IP와 협업한 한정판 패키지 역시 꾸준히 호응을 얻는 요소다.

오프라인 체험 공간도 인기다. 올해 열린 ‘맥심가족’에는 한 달간 6만9000명이 방문하며 지방 로컬 관광과 브랜드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팝업 모델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군산 월명동에서 진행된 ‘맥심골목’은 한 달간 12만 명을 끌어들여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OOH 영상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동서식품은 2015년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모카골드 팝업 카페’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방문객은 55만 명을 넘어섰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맥심은 오랜 시간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전해 온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중 최대규모 할인

개점 15주년 기념 일주일간 진행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 개점 15주년을 맞아 연중 최대 규모의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겨울철 수요가 늘어나는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할인 폭을 확대했다.

삼성카드 결제 시 국내산 한돈 목살·삼겹살과 제스프리 골드키위를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스테디셀러인 1등급

한우 양념 소불고기, 호주산 냉장 와규, 횡감용 연어, 딸기 등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할인가에 선보인다.

가전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혜택도 강화했다.

삼성카드 결제 시 신일 히터와 블루필 가습기를 할인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미닉스 더플랜더 프로는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특가에 준비한다. PB 브랜드 T STANDARD의 세제와 화장지 등 인기 상품도 최대 20% 할인한다.

/손종욱 기자

현대백 판교점 ‘내 머릿속의 태블릿’ 진행

현대백화점은 판교점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 차기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내 머릿속의 태블릿 참여 고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차기 전시인 생각수장고 연계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60분간 진행된다.

교육은 스튜디오 씽킹의 교육 방법론을 토대로 8가지 사고 습관 중 구상 역량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손종욱 기자

SSG닷컴, 김장철 수산물 최대 40% ↓

‘대한민국 수산대전’ 참여

SSG닷컴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참여해, 이달 26일까지 김장철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 지원을 더해 제철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자 마련됐다. 대표 상품인 통영 생굴은 30%, 홍가리비는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해당 상품들은 이마트 후방 물류 시설에서 출발하는 ‘쓱 주간배송’

을 통해 오후 1~2시까지 주문 시 당일 배송받을 수 있다.

입점 파트너사의 택배배송 상품도 할인한다. 새우젓, 멸치액젓, 천일염 등 김장 필수 재료를 비롯해 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 마른멸치, 갈치 등 다양한 인기 해산물도 준비했다.

SSG닷컴 이승재 수산 상품기획자(MD)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가 김장철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신세계百貨, 국내 단독 ‘마마 어워즈’ 팝업

신세계백화점이 글로벌 K-POP 시상식 2025 MAMA AWARDS의 공식 팝업을 국내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팝업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을 앞두고 마련된 국내 유일의 오프라인 체험 공간이다. 사전 예약 사이트 오픈 6분 만에 3일치 예약이 매진됐으며, 23일부터는 현장 예약을 통해 입장 가능하다.

공간은 올해 콘서트 슬로건인 어-흥(UH-HEUNG)을 테마로 꾸며졌다. 오픈스테이지의 LED 기둥을 활용해 시상식 현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각종 포토존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공식 MD 상품인 어-흥 스페셜 에디션을 만나볼 수 있다. 콜라보 부채, DIY 티셔츠, 북마크 등 5개 품목이 준비됐다. 스페셜 에디션을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스크래치권을 증정하며, 당첨자에게는 2025 MAMA AWA



신세계백화점이 2025 MAMA AWARDS의 팝업을 국내 단독으로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RDS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피스마이너스원과 협업 컬렉션도 선보인다. 티셔츠, 앞표 후디, 피규어 등 11개 품목을 판매하며, 시상식 현장 판매를 제외한 사전 판매는 신세계백화점 팝업에서만 단독으로 진행된다. 수익금 일부는 유네스코를 통해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부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세계적인 K-POP 시상식인 2025 MAMA AWARDS의 국내 단독 팝업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홍콩의 열기를 미리 가져와 시상식의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의미 있는 기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세포치료제 개발지원 서비스 본격화

병원 기반 CRDMO 플랫폼
'ONYX Biofoundry' 공개
제조, 임상 등 개발 전과정 지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위탁연구개발 생산(CRDMO) 플랫폼을 새롭게 공개하며, 연구자들을 위한 전주기 세포치료제 개발 지원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2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제11회 세포치료센터 심포지엄'에서 병원 기반 CRDMO 플랫폼 'ONYX 바이오파운더리(Biofoundry)'를 공식 공개했다.

이 날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이용석 생산본부장은 서울아산병원 세포처리 시설(CPF)과 광명 GMP센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ONYX Biofoundry의 구조와 운영 전략을 소개했다. ONYX Biofoundry는 연구, 공정개발, 제조, 품질시험, 임상, 규제 대응에 이르는 세포치료제 개발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양승혜 개발본부장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규제 및 생산 지원이 가능하다"며 "서울아산병원이라는 임상 현장과 밀접한 환경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기존 상업형 GMP 및 CDMO서비스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별점으로, 연구자들은 실험실 수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적 검증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왼쪽 다섯번째)는 지난 2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제11회 세포치료센터 심포지엄'에서 병원 기반 CRDMO 플랫폼 'ONYX 바이오파운더리(Biofoundry)'를 공식 공개했다.



서울아산병원 ONYX Biofoundry 생산 구역

과 제조 가능성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CPF는 무균제조실, 무균시험실, 이화학 실험실 등 전문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셀스택(Cellstack·세포배양용기) 96개(5만400cm²) 생산 능력과 2만4000바이알 보관 능력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실제 임상 수준의 제조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다. 특히 병원 내부에서 임상 담당 의진과 실시간으로 논의하며 개발 전략을 조정할 수 있어 임상으로 이어지는 전환 과정의 시간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함께 제공되는 광명 GMP 센터는 임상 전환 후 대규모 제조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광명 GMP 센터는 셀스택 160개(8만4000cm²) 생산역량과 4만1600 바이알 보관 용량을 갖췄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2022)과 세포처리시설 허가(2023)를 취득한 임상용 GMP 시설이다.

양승혜 본부장은 "이 시설들을 통해 연구자는 초기 연구 단계의 소규모 제조부터 임상 단계의 대규모 제조까지 동일 플랫폼 내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연구·임상·초기 상용화 단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절을 최

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연구자들이 연구실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치료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운영한다. 특히 병원 기반 제조 인프라를 활용해 임상 전환의 장벽을 낮춘 점은 국내 CGT(세포·유전자치료)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종만 대표는 "ONYX Biofoundry는 연구자들이 임상 적용 가능성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병원 기반 CRDMO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아산 세포처리시설과 광명 GMP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자와 기업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스타벅스코리아 모닝세트 이용 고객 증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전 10시 30분까지 커피와 푸드로 구성된 '모닝 세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모닝세트는 지난해 9월 스타벅스가 선보인 아침 메뉴 프로그램으로 올해 1월, 모닝 세트 푸드에 대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상 푸드를 기존 7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이 중 샌드위치 품목을 3종에서 6종으로 2배 늘리자 3분기 모닝 세트 이용 고객은 1분기 대비 약 23% 증가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모닝 세트 이용 고객에 대한 의견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보다 다채로운 스타벅스의 푸드 상품을 즐길 수 있도록 고객 수요를 기반으로 모닝 세트 푸드 구성을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인 보이그룹 '알파 드라이브 원'이 브링그린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브링그린 브랜드 앰버서더 '알파 드라이브 원' 발탁

CJ올리브영은 액티브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브링그린에서 신인 보이그룹 '알파 드라이브 원'을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알파 드라이브 원과 함께 한국과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 앱 내 '올영 매거진' 화보 공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특히 알파 드라이브 원이 브랜드 대표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등 제품력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청하 기자

인벤티지랩, '웹타이드 장기지속형 주사제' 후속 연구

베링거인겔하임 추가계약 체결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 커져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웹타이드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연구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인벤티지랩의 독자적인 미세유체 제형화 플랫폼 기술 IVL-드러그플루이드(DrugFluidic)를 기반으로, 베링거인겔하임이 보유한 웹타이드 신약 후보물질을 장기지속형 주사제 형태로 개발하기 위한 양사의 공동연

구가 지속된다. 이는 2024년 9월에 체결한 기존 공동연구 계약의 긍정적인 결과에 따른 후속 협력이다.

앞서 진행된 1차 공동연구에서 인벤티지랩은 자사의 미세유체 기반 제형화 기술을 통해 베링거인겔하임의 웹타이드 물질을 안정적이고 균질한 장기지속형 제형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으며, 약효 지속성과 체내 방출 제어 등 주요 기술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베링거인겔하임은 또 다른 웹타이드 물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이번 추가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이번 추가 계약을 통해 라이센스 아웃(기술이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현재 글로벌 빅파마 및 바이오텍들과 구체적인 협업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벤티지랩 김주희 대표이사는 "이번 추가 계약 건은 베링거인겔하임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세이 자체로도 인벤티지랩 기술력의 신뢰성과 사업적 잠재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라며,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단기간 내 사업화 성과를 구체화하고, 장기지속형 제형 기술의 글로벌 상용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벤티지랩은 미세유체 기반 약물전달시스템(DDS) 플랫폼 IVL-DrugFluidic, IVL-GeneFluidic, IVL-PePOFluidic™ 및 IVL-BioFluidic™을 중심으로 장기지속형 주사제와 유전자치료제, 경구형 웹타이드 제형뿐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의 SC제형의 상용화 및 기술이전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한국ESG 기준원 평가 'A등급' 셀트리온, 美 중심 CDMO·CMO 사업 강화

2년 연속 'A'... ESG 경쟁력 입증

셀트리온이 최근 한국ESG기준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획득해 ESG 경쟁력을 입증했다.

우선 환경 분야에서는 에너지·용수·폐기물 등 주요 환경 지표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다. 친환경 포장재 전환 확대, 자원 순환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인권 영향 평가를

매년 정례화하면서 그 대상을 협력사, 지역 사회 등으로 넓히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이사회 자체 평가를 도입했다. 또 자사 주 취득 및 소각을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2023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ESG 활동에 관한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1면 'K-바이오 빅2...'서 계속

셀트리온 역시 미국 의약품 시장을 중심으로 CDMO·CMO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셀트리온 CDMO 사업의 차별점은 '직접 생산'과 '직접 판매'에 중점을 둔 투 트랙 전략에 있다.

우선 셀트리온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미국 뉴저지 브랜치버그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어 현재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있다. 미국 판매를 위한 셀트리온 제품은 미국에서 현지 생산이 이뤄진다.

앞서 마련한 자회사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조직으로 재정비하며 직접판매 체계도 강화한다.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는 지난해 100% 자회사인 CDMO 전문기업으로 출범했지만, 전략을 변경해 글로벌 CDMO 영업과 고객사 관리를 전담하는 PM 중심의 기능형 조직으로 육성한다는 설명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는 영업 활동과 고객관리를 하면서 셀트리온에 발주를 넣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라면보다 맛있고, 커피보다 따뜻한,
삼각김밥보다 꼭 찬 우리의 이야기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2021, 나무옆의자)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유현

주최·제작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 공연문의 02-332-4902



중진공, 인도공과대학 TIF 기술협력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있는 ICT호텔에서 인도공과대학 TIF(ITI Ropar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와 'AI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오른쪽)이 인도공과대학 TIF 관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유한재단, '유재라봉사상' 여약사부문 시상

유한재단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제28회 유재라봉사상' 여약사부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여약사회의 제34회 정기 총회와 함께 개최됐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왼쪽)과 두정호 약사(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재단



한일시멘트-대한적십자사, 생명나눔단체 협약

한일시멘트는 서울시 서초구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단체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일시멘트는 주요 생산공장에서 2026년부터 상·하반기에 1회씩 헌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일시멘트 김영진 부사장(왼쪽)이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권영일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시멘트



동아쏘시오홀딩스,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수상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20일 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하는 '제24회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속가능보고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신지원 정도경영팀장(오른쪽)이 지속가능보고서 대상 수상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풀무원 뮤지엄김치간,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은 김치의 날을 맞아 풀무원 조직원들과 함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풀무원 조직원 25명이 참여해 직접 김치 담그고 풀무원이 출시한 포기김치 완제품을 더해, 총 30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종로복지재단 산하 종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에 기탁했다. /풀무원

한화그룹, 'Lift-off, my NURI' 개최

27일 누리호 4차 발사 기념 행사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지속 확대”

한화그룹은 지난 22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유성 캠퍼스에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80명으로 한 우주과학 체험 프로그램 'Lift-off, my NURI(누리) 나만의 우주를 쏘아 올린다'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80명이 '어린이 연구원'으로 참여해 우주과학을 배우고 직접 실험을 수행했다. 한화그룹이 주최·주관하고 우주항공청(KASA),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KAIST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행사는 '누리호 이야기 강연', '우



'Lift off, my NURI' 참여 학생들이 3단분리형 물로켓을 제작하고 있다.

/한화

주 과학 체험', '로켓 제작 및 발사' 등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드는 체험 중심 방식으로 진행돼 우주과학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누리호 4차 발사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이

참가 학생들에게 과학의 즐거움과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화그룹은 미래 세대가 '나만의 우주'를 향해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민병주 KIAT 원장, '지방시대 엑스포' 대통령 표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 원장 “대한민국 균형발전 앞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19일~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혁신 전략과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정책 박람회다. 2022년 부산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매년 개최되며, 지역의 미래 비전과 다양한 실천 사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엑스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행사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급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국민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며 새 정부 균형성장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한눈에 조명했다.

행사는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3일간 진행됐으며, 정부·지자체 관계자, 기업인, 청년, 지역주민 등 총 6만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지방시대 정책과 지역별 혁신 성과를 체험했다.

KIAT는 기념식에서 지역산업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민병주 KIAT 원장(사진)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지방시대의 성공은 결국 산업과 기술, 인재를 아우르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서 시작된다”며 “대통령 표창 수상은 KIAT의 역할과 노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역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삼표그룹, 삼척공장 등 강원 지역사회 안전문화 이끌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수상

삼표그룹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선제적인 화재예방 활동과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 협력하

는 안전체계 구축에 앞장선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안전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기여 활동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향토기업인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공장 설비의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 투자 ▲삼척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정기 합동 비상대응 훈련 ▲지역사회 대상 소방물품 기증 등 지속적인 안전 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화재 대응 시뮬레이션 기

반 교육 시스템과 현장 밀착형 안전점검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현장 대응력과 예방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실천한 안전의식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 최우선 경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랜드월드, 천안 물류센터 인근 주민 건강검진 지원

“지역사회 구성원 회복 최선”

이랜드월드가 지난 15일 발생한 천안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진에는 방사선 촬영 장비를 갖춘 전문 의료차량과 의사 3명을 포

함한 임상병리사·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직접 투입된다. 건강 상담, 폐 기능 검사, 폐 X-ray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호흡기 계통을 중심으로 한 정밀 검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검진은 천안시 동남구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1단지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장소 섭외와 검진 대상자 홍보는 천안시청·천안시보건소와의 긴

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사고현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지원하고 있다”며,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가용한 자원과 전문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GS샵 “‘순살 볼락’ 맛보세요”

GS샵은 가시제거 순살 볼락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GS샵의 스테디셀러인 고등어밥상 가시제거 순살 고등어와 함께 생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가시제거 순살 볼락은 코리아펠라직과 함께 기획했다. 일명 붉은 볼락으로 불리는 이 어종은 노르웨이 심해에서 서식해 육질이 단단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대형 사이즈의 자연산 볼락만 선별해 가시를 제거했다. 가격은 기존 가시제거 순살 고등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

GS샵 이해빈 푸드팀 상품기획자(MD)는 “고객 식탁 부담은 덜면서 식사의 만족도는 높이기 위해 고등어 대체 생선을 찾는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산물 라인업을 강화해 집밥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세븐일레븐 크리스마스 케이크 선봬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캐릭터 테디베어, 프리미엄 베이커리 아티제와 협업한 케이크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테디베어 캐릭터를 활용한 케이크와 아티제 협업 케이크 등 총 7종을 선보인다.

먼저 테디베어 캐릭터를 활용한 테디베어 생크림우유케이크와 테디베어 티라미수케이크를 내놓는다. 우유크림과 마스카포네 치즈 등을 사용해 풍미를 높였다.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아티제와 협업한 상품도 준비했다. 아티제 화이트 산타 테디베어 케이크와 아티제 발로나 산타 테디베어 초코케이크를 비롯해 롤케이크 3종을 만나볼 수 있다. /손종욱 기자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기획총괄정책관 권혜린 ◇팀장급 전보 △민정민원행정관 이용하

부음

▲ 이화씨 별세, 김동엽·김동기·김동일(아시아개발은행 이사)·김동례·김동선·김복선씨 모친상 = 23일,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5일. 054-245-0444

▲ 위성용(전 대우인도 사장·전 한국보중보험 사장·전 아시아개발은행 이사·전 재무부 경제협력국장)씨 별세, 이희자씨 남편상, 위민선·위정은·위지연·위구연(하버드대 전기공학부 교수)씨 부친상, 이용국(변호사·한동대 로스쿨 교수)·TO RQUIL MACLEOD·김태호씨 장인상 = 22일 오전 11시46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6일. 02-3410-6903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기대할 만한가?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게임엔터팀은 얼마 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쇼인 '지스타(G-STAR) 2025'에 법무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부스를 열고 참가했다. 필자는 지스타에서 국내외 게임업계 관계자, 투자자 등을 직접 만나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현재 게임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법적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이용과 저작권 등 침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문의를 했다. 특히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 새 정부에서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지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과 해당 개정안에 관해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정부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포함해 게임

산업의 '진흥'과 '규제' 두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개정안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법률명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해 기존의 중독이나 사행성이 부각되던 측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률명의 변경은 당장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새 정부가 '게임'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천명하는 개정이기 때문에 게임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내에 개별 사업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게임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게임진흥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핵심내용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등에 따르면, 게임산업 관련 진흥 기능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고 부처 간 정책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규제 기관은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진흥 기능은 산업 전략 수립·지원으로 집중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는 개정이라고 한다. 물론 개정안이 실제로 입법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변

화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게임을 '특정 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분류해 각 게임 성격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협회 등의 자율규제 및 국가의 자율규제 지원 관련 내용 ▲게임진흥원 내 게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 ▲디지털게임, 특정 장소형 게임의 등급 분류 주체와 등급 분류 기준 등에 관한 내용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 협회나 업계 등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된 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개정안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이뤄질지 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대로 입법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실무나 운영상에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들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나, 실제로 협회나 업계의 요구사항을 개정안의 내용으로 적지 않게 반영한 것 등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법무법인 바른

12월의 선물 ‘성인모드 챗GPT’?



기자 수첩

김 서 현
(IT부)

“성인 이용자를 성인(成人)으로 대우하겠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최근 엑스(X)를 통해 던진 화두는 매혹적인 '자유'의 선언처럼 들린다. 오픈AI는 오는 12월부터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성적(性的) 표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그러나 이 자유의 이면에는 성장세 둔화에 직면한 빅테크의 노골적인 수익 추구와, 안전장치가 제거된 기술이 가져올 파국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오픈AI 전 제품안전팀장 스티븐 애들러가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제기한 우려는 섬뜩하다. 그는 “AI가 소아성애와 폭력을

유도한 게 불과 4년 전”이라며, 기업들이 경쟁 압력에 굴복해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챗봇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던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AI가 이용자의 망상을 강화하고, 성적·정서적 의존성을 기형적으로 심화시킨 결과다.

문제는 이 '위험한 자유'가 한국 사회,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국내 10대들 사이에서는 '제타AI' 등 캐릭터 챗봇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부모 명의 휴대전화 인증 한 번이면 뚫리는 허술한 성인 인증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은 능동적으로 성적 대화와 폭력적 상황극에 뛰어들다.

세계 각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챗봇 기업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고,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고베를 켜다. 호주는 아예 16세 미만의 SNS 이용 금지까지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안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SNS와 숏폼 규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제작' 수준의 원론적 대책에 그쳤다. AI 대화는 개인 간 통신으로 분류돼 신고 없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다.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율 규제는 이미 실패했다. 실존 인물 여부를 떠나 AI 생성물의 성적 악용을 처벌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제할 강력한 입법이 시급하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술 낙관론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안전판'이다.

/seo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4일 (음 10월 5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배우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48년생 주변의 도움말을 수용하는 것이 일하는데 이득이다. 60년생 작은 성과는 있으나 만족하지 못한다. 72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 날. 84년생 마음이 우울해도 웃어야 한다.	
 소	37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49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61년생 좋은 일을 자랑 마라. 73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몸에 지녀보자. 85년생 모난 돌이 정 많은 법이니 오늘은 나서지 마라.	
 토끼	38년생 소화가 안 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 보라. 50년생 숨어 있는 낭비를 줄이고 긴축재정. 62년생 자존심만 내세우면 적이 많이 생긴다. 74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의 편이다. 86년생 마음을 바우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것이.	
 토끼	39년생 하늘은 맑고 공기도 좋으니 마음이 편안. 51년생 찬란한 태양이 나를 위해 비춘다. 63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7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이 어딘지. 87년생 배우자가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	
 양	40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52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64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 76년생 가정의 화목을 우선시하라. 88년생 새로운 마음 기분을 전환을 위해 들뜬을 감는다.	
 원숭이	41년생 투자 권유는 듣지 말 것. 53년생 약간의 먹구름은 무시해도 좋다. 65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 77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보도록. 89년생 인연을 만나려고 애쓰다가 피싱 걸릴 수 있음이니 조심.	
 말	42년생 집 밖은 전쟁터이니 이사는 신중하게. 54년생 그물에 갇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66년생 기다리던 문서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78년생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하지말자. 90년생 양보하는 절을 따지고 물건을 구매해야.	
 고양이	43년생 마을을 편안하게 가지면 세상이 아름답다. 55년생 농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 67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다 낭패 본다. 79년생 실력으로 자신을 격려하라. 91년생 생각은 많으니 지출이 생기니 움직이기가 어렵다.	
 원숭이	44년생 진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 포용이 필요. 56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이 따르는 하루. 68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80년생 오늘의 불운은 어제의 교만이다. 92년생 부분적 결함이 있어도 다시 도전해야만 할 것.	
 닭	45년생 집 매매를 서두르지 않도록. 57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니 신경 쓰인다. 69년생 주변의 무관심으로 오히려 마음 편하다. 81년생 무리한 만남으로 큰 것을 잃게 되니 주의해야. 93년생 보살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에서 주의하자.	
 돼지	46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거래가 손조롭다. 58년생 자신의 특기를 큰 자랑으로 여기지만 별거 아니다. 70년생 유혹이 많으니 절제를. 82년생 하고 있는 일에는 선수가 있고 때가 있다. 94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내 실수도 튀어나오니 양보를.	
 돼지	47년생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자. 59년생 죽은 나무를 보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71년생 오후 교통안전에 유의. 83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투자에 신중해야. 95년생 친지로부터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는다.	



김상회의四季

보시와 풍수개운

보시는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보시라도 공덕이 있다고 한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베풀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며, 마음인 것이다. 보시의 공덕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양녕대군의 자손 이야기로 반 그릇의 조 죽으로 운이 핀 얘기가. 양녕대군은 문제적 풍운아 같은 행동거지로 폐세자가 된다. 이후 계속되는 그의 풍류와 기행은 양녕대군에게 제공되던 녹도 아들 대에 가서는 끊어지게 만든다. 하인을 둘 처지도 안되어 곤궁하던 중 어느 날, 지나는 탁발승이 문 앞에 와서 시주를 청했다.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 좀 남아 있는 조로 죽을 쑤어서 먹고 있던 참에 스님이 탁발을 청하니 민망해하며 반 남은 조 죽이라도 드시겠냐 하니 스님은 그러겠다며 조 죽 그릇을 비웠다.

공양을 마친 후 스님은 앞마당에 서 있는 아름다리나무를 보더니 “이 나무를 당장 베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적선하고 갈 것은 이것뿐이요.”라 한다. 양녕의 아들은 기이하다 느끼면서도 나무를 베었다. 얼마 후 세조가 능묘 길을 가다가 그 집 앞을 지나는데, 담 너머로 보이는 집채는 유서 있어 보이는데 추녀는 누추하고 뭔가 영화가 바래고 퇴색한 느낌에 세조는 집주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명하니, 자신의 큰 숙부인 양녕대군의 집이었고 이제는 아들이 당주였으나 녹봉도 없어 빈한한 가세를 집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에 세조는 우리는 사촌 간 아니냐며, 만약 숙부가 보위에 올랐다면 사촌이 왕이 될 수도 있었으니 우리는 같은 입장이라며 그를 바로 아산 현감으로 임명했다 한다. 보시의 공덕은 기본이며, 풍수적으로도 집 안에 나무가 시야를 가리면 운을 막는다는 이치, 시야는 트이고 밝아야 하는 것이 양택 풍수의 기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학원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5
		7	4					
4				1			3	8
	2	1	5					7
9								1
8					4	9	5	
6	4			5				3
					2	1		
1				8				

문제풀이: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ㄲ	6	9	ㄴ	8	9	ㄷ	8	1
9	8	1	ㄷ	ㄲ	8	9	6	ㄴ
8	ㄴ	ㄴ	1	9	6	8	ㄲ	9
ㄴ	9	6	ㄲ	8	1	9	ㄴ	8
1	9	8	8	ㄴ	ㄴ	ㄲ	9	6
ㄴ	ㄲ	8	9	6	9	1	ㄴ	8
8	8	ㄴ	9	1	ㄴ	6	9	ㄲ
6	1	9	8	ㄴ	ㄴ	8	9	
9	ㄴ	ㄲ	6	9	8	8	1	ㄴ

ㄲ	1	9	6	ㄴ	ㄴ	8	9	8
ㄴ	ㄴ	8	9	8	9	ㄲ	1	6
9	6	8	8	1	ㄲ	9	ㄴ	ㄴ
1	ㄲ	9	8	9	ㄴ	6	8	ㄴ
8	ㄴ	ㄴ	ㄲ	ㄲ	6	1	9	9
6	9	ㄴ	1	9	8	8	ㄲ	ㄲ
8	8	6	9	ㄴ	9	ㄲ	ㄲ	1
ㄴ	ㄴ	1	ㄲ	8	8	9	6	9
9	9	ㄲ	ㄴ	6	1	ㄴ	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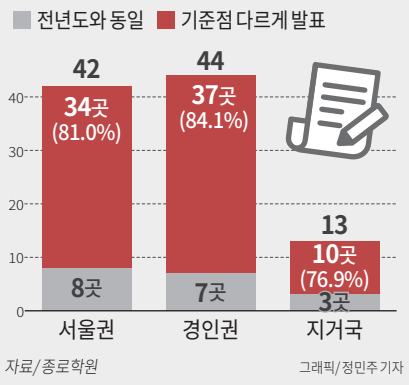
주요대 82%, 합격점 공개기준 변경… 수험생 정시예측 흔들

주요 4년제 점수 공개기준 달라져 대학·학과 간 점수 비교 어려워져 불수능, 사탐런, 의대정원 변화 등 변수 많아 올해 정시예측 ‘최고난도’

전국 주요 4년제 대학들의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이 대폭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정시 전략 수립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 간 공개 방식이 제각각으로 달라지며 기존 예측 방식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종로학원은 전국 주요 4년제 99개 대학 중 81개 대학(81.8%)이 지난해와 다른 방식으로 정시 합격점수를 발표해, 최근 어려운 수능 출제 기조 속에서 정시 합격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대교협 ‘어디가’ 발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전국 주요 대학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



2024학년도 이전까지 대부분 대학은 학과별 국어·수학·탐구 합산 평균 백분위 70%컷을 기준으로 합격선을 공개해 왔으며, 수험생들도 이를 바탕으로 합격 가능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대 모집이 크게 확대된 2025학년도에는 99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자체 환산점수만 공개했고, 72개 대학은 각 과목별 백분위 점수로 공개하는 등 발표 기준이 전년과 달라졌다.

이에 따라 동일 대학 내에서도 학과별 점수 변화를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고, 대학 간·학과 간 상대적 수준 비교 역시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과목별로 서로 다른 학생의 커트라인 점수를 제시한 대학이 많아 실제 합격생의 국·수·탐 3과목 합산 커트라인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권 42개 대학 중 34개 대학(81.0%)이 2024학년도와 다른 방식으로 발표했으며, 이 중 6개 대학(14.3%)은 자체 환산점수만 공개, 28개 대학(66.7%)은 과목별 백분위 점수로 공개했다. 기존 방식인 국·수·탐 합산 평균

백분위 점수를 유지한 대학은 8개교(19.0%)에 불과했다.

경인권 44개 대학 중 37개 대학(84.1%)이 기준을 변경했고, 거점 국·공립 대학을 포함한 13개 대학 중 10개교(76.9%)도 직전년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최상위권 대학도 발표 기준이 제각각이다. 서울대는 자체 환산점수만 공개했고, 연세대는 과목별 백분위 점수로 공개했으며, 고려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수·탐 합산 평균 점수로 공개했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정원이 다시 대폭 줄고, ‘사탐런’ 현상과 영어 절대평가 난도 상승 등이 더해져 정시 예측이 한층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학년도 정시에서는 의대 모집정원이 크게 확대되며 합격점

수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개 기준이 달라져 정확한 변화 파악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어려워진 수능, 사탐런, 의대 모집정원 변화, 대학별 합격점수 공개방식 변경이 얹히며 정시 예측 난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는 “통합수능 도입 이후인 2022~2024학년도에는 발표 기준이 대체로 동일했기 때문에 이 기간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2025학년도 자료는 기존과 다른 발표 방식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 “대교협 어디가뿐 아니라 대학별 설명회,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까지 정밀하게 확인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공개… 자족도시 전환

향후 20년간 도시발전 방향 발표
주거도시 벗어날 3대 성장축 제시

고양시가 향후 20년간 도시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의 뼈대를 공개하며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시는 21일 민방위교육장에서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열고 ‘미래도시 고양’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동환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의해 서울 배후 기능에 머물렀다”며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과 일자리, 교통,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먼저 ‘도시의 기본을 세우는 공간전략’을 통해 3대 성장축을 제시했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첨단산업벨트 ▲일산신도시와 창릉신도시를 연결하는 활력복합벨트 ▲도심과 자연

을 잇는 에코산업벨트가 핵심이다.

또한 에코산업벨트와 관련해 “하천·녹지·산림을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3개의 새로운 호수공원과 2개 이상의 저류지를 추가 조성하겠다”며 “1인당 녹지 면적을 10.5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의 기반을 키우는 성장전략’에서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 방향이 제시됐다. 시는 2040년까지 창의인재 양성, 산업·주거 순환형 도로망 구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지 확충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일자리와 세수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고양의 미래상을 ‘미래가 있는 경제혁신도시, 고양노믹스’로 규정하고, 공간 구조를 2도심·4부도심·6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일산신도시와 창릉신도시는 공동도심축으로 설정됐으며,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와 대곡 등이 부도심으로 자리 잡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성동광진 ‘별빛런’, 학생·교사 함께 달린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러닝크루 운영
10개 학교·11개 팀 선정, 193명 참여

서울시교육청 산하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궁연)은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관내 중·고등학생과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러닝크루 별빛런(RUN)’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별빛런(RUN)’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을 상징하는 ‘별빛(星光)’과 달리기 ‘RUN’을 결합한 명칭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달리며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와 건강 지표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달리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체 건강은 물론 심리·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이고,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해 ‘모두가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 성동광진 러닝크루 별빛런(RUN) 발대식 모습.

/서울시교육청

올해는 공모를 통해 10개 학교, 11개 팀이 선정됐으며 총 193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한다. 각 팀은 개인의 체력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방과후 및 주말에 매주 1회 이상 크루 활동을 이어간다.

지난 10월 31일 광희중학교에서는 런더풀(RUNderful) 대표 인플루언서 안정은 러닝전도사를 초청해 ‘2025 성동광진 러닝크루 별빛런(RUN) 발대식 및 러닝 원데이클래스’를 열었다. 이날 190여 명의 학생과 교사는 러닝 기본 자세와 주법, 안전수칙인 런티켓, 부상 예방 스트레칭 등을 배우고 실제 러닝크루

활동을 체험했다.

광희중학교 이예진 교사는 “교사와 학생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며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며 “체력 증진은 물론 마음의 성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수고등학교 이민혁 학생은 “친구들과 선생님 덕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궁연 교육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러닝크루 활동에 참여해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사총협 회장에 전민현 인제대 총장 선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6대 회장 선출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변창훈, 이하 사총협)는 지난 21일 더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총협 제26대 회장으로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을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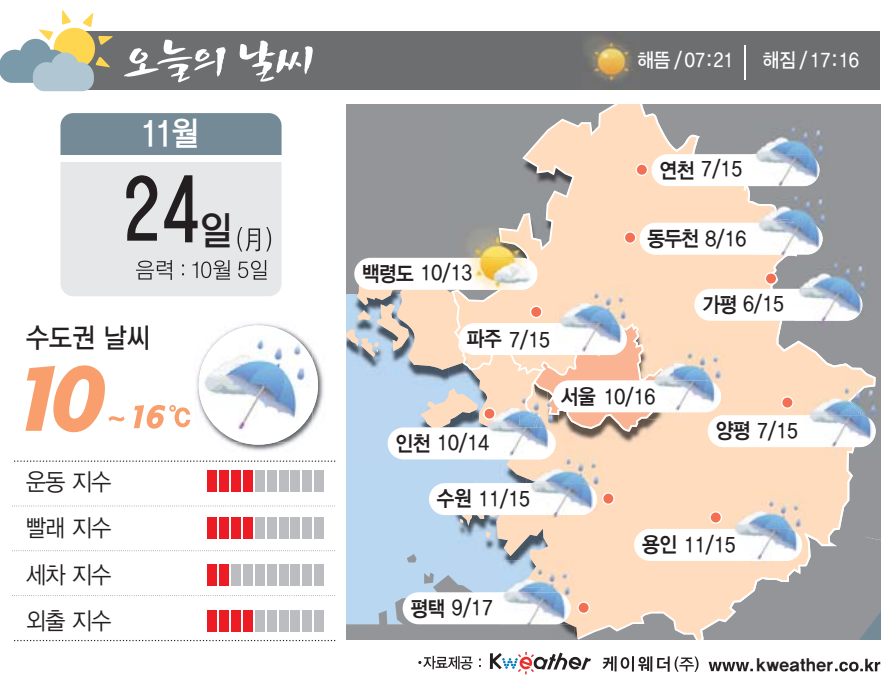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 총장(준회원 3개교)으로 구성돼 있는 협의체로 사립대학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해 사립대학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수월성 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전민현 신임 회장은 2019년 인제대 제8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2023년 연임해 인제대 제9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

다. 사총협 수석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위원, 인제대 BNIT융합대학 초대학장 등 다양한 교내외 활동과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전 신임 회장은 “사립대학이 존재의 기로에서 있는 상황에서 회원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의 아젠다뿐만 아니라, 대학 규모에 따른 맞춤형 아젠다를 개발해 회원대학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日, 내달 초 ‘일본판 DOGE’ 조직 신설… 재정 구조개혁 시동
▲트럼프, ‘상국’ 맘다니에 “철학 다르지만 목표 같아…‘강한 뉴욕’”

/사진 뉴시스

▲트럼프 행정부,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출 허용 검토
▲“국경 강제 변경 안돼”…유럽, 트럼프 ‘우크라 평화안’에 우려 표명

▲영국 한류팬들과 어우러진 한국문화…‘한류콘 2025’ 런던서 성료
▲中, 다카키치 ‘대만 발언’에 “유엔 승인 없이 군사 행동 가능” 위협



中日 갈등에
한국 찾는 유커
유통가 반색
L1

metro®

Life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세포치료제
개발지원 가동
L2



“차량정비 경험, 자산으로… 노하우 쌓아 미래의 길 넓힐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조 환 익 자동차정비공

국내에서 자동차는 명실상부한 주요 교통수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차량 등록 대수는 2640만대, 지난해 국내 차량 면허 소지자는 3550만명이었다. 국민 2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성인 5명 중 4명은 차량 면허를 취득한 셈이다. 철도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을 벗어나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의 영역에서 자동차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국내의 차량 등록 대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자동차를 정비하는 ‘차량 정비공’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높은 노동강도를 이유로 젊은 세대가 차량 정비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현장에선 40~50대의 고참 정비공들이 주축을 이룬다.

올해로 만 4년의 경력을 갖춘 조환익의 자동차정비공(21)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젊은 차량 정비공이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의 도제 프로그램으로 경력을 시작했고,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했다. 대부분의 국내 차량은 물론, 수입차나 전기차도 정비한 경험이 있다.

그는 고등학생 기술공들이 대부분 대학 진학이나 공장으로의 취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분명 보람이 있는 일이지만, 갓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배우기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비슷한 시기에 현장에 나왔던 친구 중에서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직종이나 자체적인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비소에 비슷한 또래는 현장에 좀처럼 없지만, 선배 정비공들과 일하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십 수 년에 달하는 경력을 갖춘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먼 훗날에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 GM대우 경기 남동서비스센터 앞에서 만난 조환익 차량 정비공.

2 조환익 정비공은 자신의 취미가 여행이라고 밝혔다. 일찍부터 직업 활동을 시작한 만큼,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여유를 갖고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 ‘경험’이 곧 능력

차량 정비소의 업무는 다양하다. 경정비 부서에서는 엔진 오일, 냉각수, 브레이크액 등 차량 내 소모품을 교체하며, 정비 부서에서는 법정 자동차 검사와 부품 교체를 담당한다. 판금·도장 부서에서는 차량의 외형적 파손이나 도색을 담당하며, 사고 차량의 전반적인 수리나 타이어 교체도 일반적으로는 차량 정비소에서 진행된다.

각각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정비공들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지만, 조 정비공이 주로 담당하는 직무는 사고 차량 정비다. 사고가 발생해 정비소로 인계된 차량을 운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긴급 수리하고, 엔진 등 주요 부품의 이상 여부를 파악한다.

그는 “좋은 정비공은 차량을 살피면서 운전자가 어떤 길로 다니는지도 평소에 차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대략 알 수 있다. 차량에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차량도 별문제 없이 깨끗이 관리하지만, 관리에 무관심한 사람은 출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차량도 금세 여러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비가 안 된 차량은 언제든 갑작스럽게 오작동하거나 멈춰설 수 있고, 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하다. 정비만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정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정비공은 차량 정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브랜드나 차량별로 부품의 배치가 다르고, 같은 계열의 차량이라도 출시 시기별로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같



고등학교 2학년, 정비공 경력 시작 힘들지만, 현장에서 배울 점 많아

車정비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 매뉴얼보다 상황별 능숙함 필요

사회초년, 고참들과 세대간 갈등도 일 배우며 도움 주고받는 사이로

일찍 사회 나왔지만 하고픈일 많아 업무 외에도 다양한 경험 쌓고 싶어

은 차량이라도 다른 엔진 시스템을 탑재한 경우가 찾아졌다. 경험이 많을수록 정비나 수리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그는 “엔진과 같은 주요 부품은 꼼꼼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자잘한 부품들은 매뉴얼이 모든 상황을 상정해두지 못한 경우도 자주 있다. 경험이 곧 능숙함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험 많은 정비공들은 잠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수리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 아직은 ‘젊은 정비공’

차량정비소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간다. 간단한 급행부터, 다양한 사고로 운전 불능이 된 차량까지 정비소로 몰려든다. 차량을 살펴본 뒤 보험사와 보험을 산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온종일 다양한 차량을 살펴보면서 퇴근 시간이 된다. 낮에 끝내지 못한 일을 마치겠다고 야근에 나서는 정비공도 여럿이다.

조 정비공은 자신의 직업에서 적성을 찾았지만, 일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고참들과 적게는 10살, 많게는 20~30살의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세대 차이로 갈등이 자주 있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게 되어 무척 원만한 사이가 됐다”고 했다.

나이에 비해 많은 경력을 쌓았지만, 조 정비공은 아직 자신의 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자평한다.

그는 “어린 시절에는 비슷한 또래들이 꿈꾸는 것처럼 유튜브를 꿈꿨던 적이 있다. 지금 하는 일도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지만, 앞으로 살면서 업무 외 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군 복무를 마치고, 일하던 곳에서 경험을 더 쌓고 싶다. 그 뒤에는 차량을 생산하는 생산직이나 다른 회사의 정비소에서도 일해보고 싶다. 또래 친구들과 여행도 떠나고, 나중에는 나만의 특별한 자동차를 마련해 사람들에게 뽐내보고도 싶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손흥민, 기적의 동점 골 등 2골…LAFC는 승부차기패배 /사진 뉴시스

▲“연출적 타협 안 돼”…옥주현, 콘서트 2주 남기고 연기

▲5시간40분 바그너 대작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국내 초연

▲신구대, e스포츠 대학리그 LoL 종목 2연패 달성

▲유쾌함 내세운 ‘나우 유 씨 미3’, 100만 관객 돌파 앞뒤

▲봅슬레이 2인승 김진수팀 ‘올림픽 트랙’서 열린 첫 월드컵 4위

SAMSUNG

Galaxy XR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Powered by
Android XR